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전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권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에게 행동케 하소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히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찌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찌로다 (시편 96편 1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434호 2013년 5월 25일 (토)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종교자유 위축 “티파티운동” 다시 부상!

(Tea Party)

### 미 언론, 오바마행정부 군 종교활동 제한·IRS 표적수사논란에 보수정치권 대결집 보도

재선 승리로 집권 2기에 들어선 오바마 행정부가 연일 오바마 뱅가치 사건 은폐 의혹 등 잇단 악재로 정치적 수세에 몰리고 있다. 특히 AP통신의 무단 도청과 연방국세청(IRS)의 티파티운동 진영이나 복음주의적 비영리단체들의 표적수사 등으로,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펜타곤 즉 국방부내에서도 이미 군대 내의 종교자유 즉 기독교 군복이나 크리스천들의 복음전파를 “개종”으로 정의해 이를 금지하는 등 오바마 대통령 집권 후 위축되고 있는 종교적 자유문제가 이미 보수 복음주의 진영의 연대를 낳게 하고 있다(월드시 5월 2일자 보도, Religious battle lines: Controversy erupts over a Pentagon meeting concerning Christians being able share their faith within the military). 따라서 이미 전열을 재정비한 보수 복음주의 진영에서 IRS의 표적수사에 재빠르게 기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티파티운동’이 이미 정치권 재 부상 조짐이라는 지적

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오바마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면세자격을 부적절하게 표적 수사한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발표를 하기 몇 시간 전 미국연방국세청 전현직 청장이 지난해 5월 보수 성향 티파티운동단체들을 표적수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사한의 심각성을 고려해 IRS의 표적수사 문제와 관련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보수 진영의 집중포화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티파티운동’ 진영의 부활이 가시적일 정도로 복음주의 진영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대결집이 일어나고 있다(월드시, 5월 16일자 보도, Tea Party revival: The IRS scandal puts the spotlight back on a political movement many had written off).

최근 미국 정치권은 국제정 직원 이 공화당 보수 성향의 사회복지단체를 지난 2년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을 놓고 들끓고 있다. 즉 지난 2010년 IRS는 단체이름에 ‘티 파티(tea party)’, ‘애국자(patriot)’ 등이 들어간 곳을 걸러내 세부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빌리 그래함 목사나 이끄는 ‘빌리 그래함 복음주의협회’와 ‘사마리아인의 지갑’ 그리고 제임스 담슨 목사의 ‘포커스온더필리’ 등이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반대한 단체들이 표적 수사의 대상으로, 고의적이거나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IRS가 고의적으로 보수 단체를 표적 조사했다면 이는 매우 과중한 사안이다. IRS가 중립적, 초당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관련자들은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IRS 역시 성명을 내고 스티븐 밀러 청장대행은 2012년 5월3일 담당 직원으로부터 특정 단체의 면세 자격 지원서가 단체 이름에 따라 부적절하게 따로 분류돼 엄격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밀러 청장대행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 두 명은 자신들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들이 IRS가 티파티 단체들의 면세 자격 지원서 검토에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러 청장대행이 차후 자신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를 언



IRS의 보수단체 면세자격 표적수사에 보수정치권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

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러 청장대행에 13일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는 별도로 IRS는 밀러 청장대행의 전임자인 더글러스 슐만 청장도 2012년 5월 문제를 보고 받았다고 13일 발표했다. 슐만 청장은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청장직을 임명 받았다. 공화당 측에 따르면 슐만 청장은 문제를 보고 받은 사실을 공화당에 알리지 않았다. 슐만 청장은 IRS가 표적 수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 증명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슐만 청장에 13일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논란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거론한 자리에서 민주당화 양당 의원들이 제기한 불

만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IRS 직원들이 보도된 대로 보수단체들을 고의적으로 표적 수사했다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IRS 직원의 직권 남용 사실에 대해 10일 처음 보고 받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은 재무부 산하 독립기관인 세무관리 조사부(TIGTA)의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안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IRS의 표적 수사 논란은 바로 면세 지위에 따른 정치적 활동의 제한 때문이다. 연방 세법501(c)(4) 조항에 따라 면세 지위를 부여받은 단체들은 정치활동에 일부 참여할 수 있지만, 그 주요 활동은 정치가 아니라 사회복지 증진이어야 한다.

주말에 공개된 수사 세부사항에 따르면 2011년 6월까지 IRS 직원들은 100개가 넘는 단체들을 단체들의 관심 분야(정부 예산, 부채, 세금)에 따라 분류했다. 이들 단체가 ‘미국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로비활동을 계획했는가 아니면 ‘미국 정치를 비판했는가’에 따라 분류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IRS가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에, 문제가 계속 증폭되고 있다.

결국 ‘티파티운동’의 대표 격인 상하원 의원들(Senate Republican Leader Mitch McConnell Sens, Rand Paul, R-Ky., Ted Cruz, R-Texas, Michele Bachmann, R-Minn)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3면으로 계속)

##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 USB(MP3) 발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본 미주크리스천신문(발행인 장영준 목사)이 지난 4월 9일부터 18일까지 성지 예루살렘에서 개최한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의 강의 15편 전체가 USB(MP3) 메모리로 제작됐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10명의 전문 강사들이 성경적 바른 복음이 위협받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진 긴급 당면과제인 바른 신학적 접근과 바른 신앙회복에 대한 도전에 열정과 성의를 다해 강의하며, 특히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현실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바른 목회/선교 사역에 대한 신학적 접근으로부터 실제적 목회/선교 현장 접근까지 엄선된 13강의와 2회의 저녁영성집회 전 강의를 모두 담았다.

이번에는 한 강의 당 1시간 15분 씩 주어져 총 소요시간 16시간. 특히 기존의 CD가 아닌 명함 크기의 USB로 제작돼 지갑 속 휴대가 가능케 함으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가격은 30달러(국내우송료 포함).

강사는 김성길, 김종준, 장영준, 권태진, 황의영, 이영섭, 김기원, 김승천, 이만형, 김혜천 목사(강의한 순서대로 수록돼 있다).

주문: LA: 601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 (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가격: \$30(미국내 우송료 포함)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7면 제28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강의인 황의영 목사(SBM 대표)



13면 위그노 신앙 답사기(2) 한평우 목사(로마한인교회)



14면 은혜의땅 예루살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3)



16면 인터뷰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담임)

## 창립12주년 감사예배 및 권사 임직식

남가주든든한교회는 창립1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와 권사 임직식을 갖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더욱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권/사/임/직



정순희



신명도



홍귀인



김선의



김희원



서미숙



김정란

일시: 2013. 6. 2(주일) 오전 11:00

장소: 남가주든든한교회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전화: 213-481-2779

##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 김현인 목사 외 교우 일동





시론

한 번 사는 인생



양준길 목사 (뉴저지 펠그림교회)

얼마전 매우 의미있는 사회학적 연구조사 결과를 읽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어떻게 달리 살 것인가?" 라는 하나의 질문을 95세가 넘는 50명에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대답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다양한 답들이 노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생각하며 살 것이다(I would reflect more).

둘째,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좀 더 모험하며 살 것이다(I would risk more).

셋째,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내가 죽은 후에도 지속될 것들을 더 많이 하며 살 것이다(I would do more things that would live on after I am dead).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은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두 번째는 앞서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살려 더 잘 살아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단 한 번의 인생이 주어집니다. 그러기에 앞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서 인생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변하는 세상가운데서 분주하게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입니까? 정신없이 무분별하게 변화에 대처하며 살다보면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결과를 맞이하기 십상입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점점 약해져가는 세대로 인하여 생명 같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에 쓰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 그러므로 여러서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엡5:15-18).

우리는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궁극적인 심판자는 세상도 나 자신도 아니요 오직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영원에 잇대어지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번 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 증명하라!”

CT, 40대 초반 미국목회자들의 열풍, “급진적 제자도” 소개(하)

급진적 기독교 운동은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급진적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가르친다. 플랫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의 주요 관심사는 '복음 흘러보내기'(outflow of the gospel)에 있다. '복음 흘러보내기'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 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 교회의 좋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로', '진짜로' 같은 강조 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보면 미국 기독교의 언어가 얼마나 공허한 울림을 남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전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라고 찬양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현대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의지하고, '진짜로' 순종해야 한다. 이런 현실은 현대 교회의 어휘가 성경의 단순한 어휘와 얼마나 동떨어져있는지 잘 보여준다.

를 애곡한다.

그들이 다루는 삶의 평범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바로 죽음에 관한 문제다. 급진적 기독교 작가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열심히 환기시킨다. 아이들부터 "살보다는 죽음을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공언한다. 플랫은 "얼마든지 급진적으로 살아도 된다."

급진적 기독교 작가인 퍼틱의 책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은 종종 실망과 실패로 보이기도 하며, 우리가 "가장 고통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장문의 고백을 발견했을 때 내가 신선한 느낌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러나 정말로 신앙을 활성화하려면 오히려 예배와 공동체의 관습을 회복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제자의 삶을 형성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급진적 기독교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노인과 환자를 백안시하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기 쉽다. 물론 목사들이 설교에서 죽음을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설교한다고 교인들이 제자도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도 인정하듯이 선교에 대해 설교한다고 사람들이 선교를 더 사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정기간 단기간 선교여행 등의 방법으로 선교를 생활화해야 한다.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다. 박해받던 초대교회 신도들은 필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하묘지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주변에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묻혔다. 두 경우 모두 교



예배현장에 관심·자기성찰에는 반드시 소명확인 필요  
개인적 헌신을 교회 공동체적 삶과 묶어 균형 이뤄야

그러나 강조부사만 덧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믿음'을 '헌신'으로 대체하면 그리스도인이 순전히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 성화의 길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길 잃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길 잃고 헤매다고 느낄 때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한다. 급진적인 목사들이 아무리 다른 식으로 말한다 해도, 그들의 메시지는 교인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믿음이 정말로 어떤 식으로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지, 그 과정이 과연 우리 생각만큼 의식적인 과정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또 그 과정이 우리 생각만큼 극적인 과정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는다. 급진적 기독교운동은 주로 순교자나 선교사들을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준다. 그러나 급진적 기독교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극적인 신앙은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종종 지루하기까지 한 지극히 평범한 삶의 가치

죽은 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췌는 부모님을 일찍 여윈 데다 장례식에 자주 참석하다 보니 죽음에 대해 점점 더 절박해진다 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들은 일주일에 6일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공장으로 일하러 나가는 가정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루 10시간씩 고된 노동을 하며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싱글맘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로 판단컨대 '급진적'이라는 말은 이미 중산층의 삶을 누리며 뭔가 희생할 만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급진적 기독교운동 작가들은 '실패', 즉 자신을 희생했지만 전혀 변화의 신호를 포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급진적 작가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선교지에 '가서 죽는' 것은 훗날 이루어질 복음의 승리를 위한 일시적인 희생이었을 뿐이라는 암시가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돌아와서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자기 노력의 결실을 목도하게 된다.

보이는 암담한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급진적' 기독교 작가들의 글은 상당히 불균형한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브룩링스교회 무대에 꾸며진 빈민촌은 급진적 교회운동의 모순을 잘 보여준다. 급진적 교회운동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는 젊고 열정적인 목사들과 작가들의 진실한 노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그 메시지의 전달방식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킨다.

그들은 중산층 동네에 자리 잡은 대형 예배당의 설교단이라고 불리는 '무대'에 가까운 단상에서, 갭(Gap) 브랜드 옷을 차려입은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현대인이 가장 선호하는 문화 취미인 극장의 언어와 상징을 빌려야 한다.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면 당연히 인위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 급진적 기독교운동의 문제는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산층과 상류층 그리스도인들이 보다 진지하고 심오한 신앙체험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상기시키는 환경에 둘러싸여있었고, 교회의 건축과 관습에는 죽음을 그립자가 드러내져있었다.

무대 위에 꾸며진 빈민촌은 딱 그 정도의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

너무이 급진적 메시지는 집회와 출판으로 얻은 유명세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패키지 형태를 띠게 된다. 플랫은 급진적 교회운동과 관련된 모든 수익을 구제와 선교 사업에 기부함으로써 일찌감치 비판의 여지를 차단했지만, 급진적인 삶을 추구하는 메시지가 인기를 얻으려면 수익성 높은 출판문화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출판이란 본질적으로 수익을 염두에 두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형 교회 목사가 '정말로' 추구할 수 있는 급진적인 방법은 출판물을 거절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수도사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지 모른다. 하지만 세인 클레어본처럼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한다 해도 유명세는 피할 수 없다. 목사가 유명세에 초연한 반응을 보인다면 겸손하다는 칭송까지 더해져 훨씬 더 유명인사가 되고 말 것이다.

(3편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Summer Special Global Leadership Seminar**  
June 13, 2013, 9:00 am- 5:00 pm, June 14, 9:00 am- 12:00 pm

**Rev. Shemchenko**  
Russia Christian Leader  
Russia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러시아 기독교의 오늘과 미래"

**Dr. Bob Fu**  
President of China Aid, IFPP Director  
"Christianity in China and Leadership"  
중국기독교 리더  
"중국의 기독교 리더십"

**Bill Federer** IEC President,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American Minute  
"Christianity in America and Leadership"  
"미국의 기독교리더십"

**Dr. Kum Y. Kim**,  
President of Midwest Alumni  
"Korean Christianity Today and Tomorrow"  
Midwest University 총동문회장  
"한국기독교의 미래"

**Dr. James Song**,  
President of Midwest University  
"Global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총장  
"글로벌리더십 개발"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리더십 박사과정 입학문의 손동원 교수 covenant@unite1.co.kr  
세계 각국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Seminar**  
Prof. Sung Joon Kim (St. Louis University Ph.D Candidate)  
Blended Courses - CC 502, CC523  
ICA Certificate  
June 10-14, 2013

**27th Anniversary Graduation Ceremony**  
June 14, 2013. 3:00 pm

**27th Anniversary Midwest Summer Concert**  
June 14, 2013. 7:00 pm

**Register Now ! e-mail to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usa@midwest.edu  
(636) 327-4645, St. Louis, Missouri



# 사우디, 타종교 예배처소금지 원칙 엄격 고수

## 중동선교단체, 사우디 정부의 타종교 배제 원칙 비난

유럽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무부 장관 엘에이씨가 이슬람교 신성함의 발상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다른 종교의 예배 처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일제히 성토했다. 엘에이씨 장관의 발언은 사우디 정부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데,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영토 내에서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예배 처소의 설립은 물론 다른 종교의 의식을 지키는 것조차 금지해왔다.



중과외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면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는 다른 나라들은 사우디와 같이 타종교를 강하게 배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사우디의 이슬람교 최고학자(Mufti Sheikh) 알 쉬크(Abdel Aziz al-Sheikh)는 얼마전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교회들을 파괴하라는 종교 율령(fatwa)을 내려 유럽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슬람교 성직자 비난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사우디 국왕은 여러 종교와 문화 사이의 대화를 위한 모임을 주도적으로 후원해왔고, 사우디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존재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사우디 내의 타종교 시설 금지 조치를 여전히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황청도 사우디 정부를 향해 타종교 배제 정책의 전환을 촉구해왔다.

미국의 연구단체 퓨포럼이 지난 2010년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인구 2,745만 명의 93%가 이슬람교도이며, 4.4%가 기독교인이다.

한편 2010년 개정된 "세계기독교정보"도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인구 2,624만 명(2010년)의 92.4%가 이슬람교도이며, 기독교인 비율은 5.4%라고 기록했다. 반면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 CIA이 운영하는 사이트(The World Factbook)는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인구 2,694만 명(2013년)의 100%가 국교인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는 5백만 명 이상이며, 1천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세계의 기독교 박해 상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오픈도어스신교회(Open Doors)의 '2013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 목록(2013 World Watch List)'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북한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며, 2012년 3위에서 한 계단 상승해 사우디의 정치 자유와 시민의 자유는 지구촌에서 최하위권이다.

이번 장관의 발언은 2013년 4월 말 엘에이씨 장관이 유럽국가 의원들과 외교위원회 위원들과의 모임에서 유럽위원들의 종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나온 것이며, 그의 발언은 사우디 정부의 타종교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교가 아닌 타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러한 원칙은 아라비아 반도에 두 개의 종교가 있을 수 없다는 이슬람교의 살라피(Salafi)

### (2면에서 계속)

초창기 사막의 교부들 중에도 이런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온갖 매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풍요롭고 개방적인 현대 사회에서는 그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급진적 신앙이 보여주는 마치 막역설은 '현신'이나 '정말로' 같은 언어들이 신앙에 대한 개인적이고 낭만적인 관점을 조장하는데, 급진적 교회운동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부지불식간에 교인들을 교회에서 소외시키고 교회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대신 교회 자체를 문제의 일부로 보게 만든다.

아이들만은 예수를 낭만적인 친구로 묘사하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예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플랫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위해 교회의 좋은 것을 희생하라"고 촉구한다. 아이들만과 플랫은 모두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라고 요구하지만, 먼저 피상적인 교회생활을 넘어서서 자신과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 살펴보라고 권면한다. 그런 가르침은 제도적 기독교를 비판했던 쇠렌 키르케고르부터 값싼 은혜를 통탄했던 디트리히 본회퍼까지 그 역사가 깊다. 그러나 그들은 반제도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맥락에서 교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개인적인 급진성은 공동체적 삶에 대한 관심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두 가지가 분리돼 균형을 상실해버리면 외로운 개인이 부패한 제도 및 사회와 맞서 싸우는 매력적인 구도의 주변문화로 모방하는데 그치고 말 위험이 있다. 성경은 개인적 헌신을 교회의 공동체적 삶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다. 바울의 훈계가 담긴 모든 편지는 거의 '교회'를 대상으로 쓰인 것이다.

자기성찰 운동은 처음에 많은 호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의 문화를 구축해야 하고, 문화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복음을 영속적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는 절박하고 감동적인 설교만으로는 그런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제도와 관습(예수, 문학, 신학, 예배의식, 종교축제 등)을 구축하고 보다 깊고 영속적인 신앙을 형성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건축에는 돈이 들고 아름다운 건축에는 더 많은 돈이 든다. 대학은 가난한 사람을 먹이지도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지만 교회와 세상이 축적한 지식을 널리 전파한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운동이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급진적 기독교에 그런 것들을 위한 여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새롭게 관심을 환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배현장이다. 교회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가장 중요한 무대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다. 만약 교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면(정말로 많은 교인들이 그렇다), 우리의 예배 역시 무의미하고 스타,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미국식 예배 스타일에 무비판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교인들의 자기성찰에는 반드시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선교에 부름 받았는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봉사에 부름 받았는지,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복음의 영원하고 초월적인 소망을 상기시키는 작업에 부름 받았는지 숙고해보는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 진짜 급진적 신앙이란 오히려 강조부사 없는 평범한 말로도 신앙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회복할 때, 일상에서 하

나님의 섬리를 증명해 보일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 된 것은 그가 가난한 동네로 이주해 들어갔거나 자기 집 거실에 쓰레기터미를 쌓아놓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과 '여름 중에' 우연히 마주쳤다. 우리도 뭔가 급진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때, '정말로' 영적이고 '정말로' 헌신적이고 '정말로' 신앙적일 때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중산층 이웃들 곁에서, 열로우스톤 국립공원이나 디즈니랜드로 여행을 가면서, 그리고 물론 단기 선교여행 도중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이웃들을 위해 조용히 멈춰 서서 손을 내밀고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말이다.

### 종교자유 위축 "티파티운동" 다시 부상

#### (1면에서 계속)

그 내용은 백악관이나 IRS에서 책임질 만한 직책에서 표적 수사 논란에 대한 해명이나 성명이 나올 때까지, 네트워크를 미전역으로 확대해 오바마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대대적인 청문 운동들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까지 언제부터 보수단체들을 면밀히 조사하게 됐는지는 확실치는 않다. 그러나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IRS 표적 수사와 관련한 청문회 등 미 정치권은 다시 한번 진보와 보수로 양분돼 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미 언론은 관측하고 있다.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 시편 은혜 나누기

## "사망의 생각의 길이 아닌 생명의 생각의 길을 가는 사람"

(시 94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나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이 마칠 때까지 나에게 나타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활동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를 표현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원치 않지만 그 죄를 표현함으로써 죄가 나타나고, 자기 자신은 또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성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인격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인격과 죄의 인격으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삶에서 이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것과 죄로부터 오는 사망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인격을 더욱 잘 맺는 사람으로 성장하여야 하며 목회자는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주인은 일을 원하심이 아니라,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악한 것을 보고 분노할 때에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나에게서 화를 내는 것,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조롱과 멸시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사망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망의 성품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 나에게서 생명의 것과 사망의 것 중에서 어느 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새로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는 것이 창조주에게 받은 자기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맺어야 합니다. 말도 좋은 말, 생명의 말을 하도록 훈련하고, 또 성품을 나타내는 것도 향기를, 빛을 나타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하셨습니다 때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품으면 내가 밝아지고, 악한 것을 품으면 내가 어두워지고 무겁습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나타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하셨습니다(골3:4). 우리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인지요?

우리 창조주 아버지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사43:1).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죄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도 불행하고 이웃들을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은 자신도 행복하고 이웃도 행복하게 하는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잘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육 받고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비록 실수하고 또 실수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성장하게 됩니다.

교회는 배우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대접 받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영생을 받은 것이 대접입니다. 그 이상의 어떤 대접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져 버릴 니까? 성경에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섬김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악이 있기 때문에, 또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섬김한 소리도 들으면서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것을 품을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것을 품을 것인가? 하는 훈련으로 생명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밤나무에다 돌을 던지면 그 밤나무는 밤송이를 던져줍니다. 그런데 사과나무에 돌을 던지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던져줍니다. 왜 그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는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났더라도 사과밖에 없으니 사과를 던져주듯이, 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괴로운 사람에게도 하나님밖에 던져줄 것이 없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자주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내 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극상품 포도나무로 지음 받은 것을 알고 그 복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 복된, 성령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를 누리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망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생명의 생각으로 삽시다. 아멘.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 수여식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 초청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 신학교 제 24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다음과 같이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졸업하시는 분들을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캐나다 분교 학위수여식은 본교에서 함께 거행합니다.

### 학위 취득자

- 목회학석사(M. Div) 김차인, 김현경, 박종원, 이양미, 이종주, 정인수, 이인섭, 이승훈
- 기독교 교육학과(M.R.E) 신선화, 조제인
- 여 교역학(Diploma) 정효순
- 신 학사 (B. Th) 윤승진

일 시: 주후 2013년 5월 27일(월) 오후 8시  
장 소: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연락 처: (718)463-7163  
(718)886-4040  
(646)717-2733



# 빛과 소금으로..

##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아름다움과 시간

당신은 아름답다고 느끼십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세계 여성들이 인터넷에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을 너무나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영

국, 일본, 미국 등 선진국 여성들이 보는 시각에 따르면 한국여성들을 명품핸드백을 들어야 자존심이 산다고 생각하며, 고급 브랜드의 옷과 가방을 사기위해 매춘행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거침없이 얼굴성형을 하는 것이 어린 학생들조차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이 무슨 명품 옷이 필요하냐고 덧붙였습니다. 여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미국 본토 한인들이 사는 곳곳마다 매춘단속에 꼭 빠지지 않는 한국여성들을 지적하면서 한결같이 꿈과 희망이 없는 이상한 여성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자신이 충분히 아름답다고 느끼는 만족도가 아주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개성에 맞게 꾸미기보다는 유행에 편중된 화장과 의상, 성형으로 인한 획일적인 외모 이러한 잘못된 아름다움의 개념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미인의 기준은 초승달 같은 눈썹에 마늘썹 같은 코, 앵두 같은 입술, 반듯한

이마를 지닌 여인을 미인으로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의 화가 신윤복이 그린 '미인도'의 여인들을 보면 눈 코 입이 작고 전체적으로 다소 곱한 분위기를 주는 여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비를 간택할 때는 온화하고 복이 넘치는 얼굴을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은 미인의 조건을 흑백이 분명한 눈동자와 눈썹, 하얀 피부를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손과 발은 작고 약간 두툼한 아랫입술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미녀로 뽑았다고 합니다.

서양의 미인을 살펴보면 서양 미인은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했는데 르네상스시대에는 넓은 미간에 턱과 코가 작아야 미인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앓고 붉은 입술, 검은 눈동자와 눈썹도 조건으로 꼽았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베

트남 소수민족인 자옉족 여인들은 눈썹이 없어야 미인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마치 모나리자처럼 말입니다. 사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태국북부의 카렌의 파동족의 여인은 어려서부터 목에 링을 걸어 무려 30센티까지 길게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화는 목이 긴 아름다운 용이 바람에 의해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파동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전설에 의해 여인들이 고통을 참아가며 목에 링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형수술은 자타공인 세계적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여성들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얼마 전 한 여성이 한국을 방문하여 성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 후 그녀가 본국

으로 돌아가 입국수속을 할 때 온 가족은 물론 지방에 있는 친척까지 보증서를 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서 혼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모습에다 웬지 어색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시간은 아름다움의 기준과 관점이 변하게 합니다. 지금 아무리 멋지게 꾸미기 위해 성형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지방이식 수술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겨집니다. 앞서 말한 동영상의 마지막의 문구('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가 우리를 생각해 잠깐

# 푸 / 른 / 초 / 장

## 정요한 목사

(미주벨레교회)



얼마 전 세계 영화계의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던 '레미제라블'의 작가인 불란서의 빅토르 위고(Victor Hugo)는 말하기를 '바이킹의 나라 해적의 나라가 대영제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는 '세익스피어 전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세익스피어 전집은 영국인이 썼으나 성경책은 영국인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책이 위대한 영국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을 '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는 '평탄 내려다 본다'는 의미입니다. 육망대로 사는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평탄 내려다보며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지 말고 마음을 활짝 펴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위시키고, 그 뒤를 이어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케 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와 백성들에게 안정을 주고 번영하게 하

차남 아비나답, 3남 삼마가 차례로 나왔지만 모두 합격하지 못하고 장남부터 7남까지 낙방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자의 조건, 미모의 조건, 학식의 조건, 재산유무의 조건,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막내가 하나 있지만 그는 너무 어리고 불품도 없어 아예 안된다고 여기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의 인품은 아버지가 잘 알고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도 아예 소용이 없다고 할 만큼 다윗은 어리고 무자격자였습니다.

윗을 통해 믿음없는 골리앗 장군을 꺾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삼상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직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역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하

치는 목동이었었습니다. 누구하나 보는 사람없는 들에서 홀로 양을 칠 때에도, 다윗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수천마리의 양 가운데 한 마리쯤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양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어진 일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람이 안보는 현상에서도 조그만 양한마리를 위해 이와 같이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큰 목자로 쓰시고, 온 백성을 다윗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행13:14-24)

성경은 개인은 물론 사회와 나라를 위키에서 구하고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즈음같이 사회가 혼탁스럽고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온데간데없고 도탄에 빠져 있는 이때에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성경에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던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씨의 성추행 사건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주의 사무엘윤 목사의 어린 소녀와의 성추행 사건이나 우리 모두에게 민망하고 입에 오르키 불편한 사건들입니다. 사람과 짐승은 다릅니다. 공직이나 지도자들이 행한 일련의 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저와 여러분들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짐승이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헬라이로 인간을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를 바라 본

위를 바라보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선생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가운데 구약시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입었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와 종살이로 고생고생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찢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 사무엘 선지자까지는 사자들에게 의해 나라가 통치되었으며, 사무엘 선지자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으로 구약적으로 나온 성경이 삼상 13장입니다. 삼상 13장 14절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새에게는 여덟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새의 여덟 아들이 차례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와 선을 보았습니다. 제일먼저 장남인 엘리압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으나 엘리압 자신도 장남인 자기라고 은근히 자부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러한 다윗이 아주 합당했습니다. 다윗을 보고 '이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니 나의 일을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이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기 까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첫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새에게는 여덟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 훌륭히 갖추었으나,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은, 바로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삼상 17장에서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몰뚫히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있는 다

오 하나님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자기 기분대로 살려 보내고, 우양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도 않았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게 됩니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다윗은 참으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충성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아버지의 양을

마지막 네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교만하면 패망하고 겸손하면 축복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 16:18절에 교만은 패망이요 겸손은 준권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겸손하지 아니하고 천방지축으로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지만 이제 앞으로도 끝까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 축복해주시지만 교만하면 끝장입니다. 늘 겸손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무슨 일에든지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충성의 사람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풍성한 복을 은혜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 믿고 맡길수 있는 [하나님의 학교] N.J. United Christian Academy



## NJUCA 교육의 특징

- 기독교 교육 이념에 기초한
- 지성(IQ), 감성(EQ), 영성(SQ)교육**
- 헌신적인 교사들에 의한 친밀한 학생관리 및 상담
- 특별활동 및 봉사활동을 통한 이타적인 인재 육성
- SAT, TOEFL, 수업을 통한 명문대 진학 준비
- 한식과 중국식 음식을 제공하는 기숙사 환경



## 2013-2014년 신입, 편입생 모집중

- 대상: 6th ~ 12th
- 인원: 각 학년별 약간 명
- 전형: 서류 및 인터뷰
- 개강: 2013년 9월 5일
- 특징: 국제 유학생에게 정식 1-20발급

개교 10주년을 앞두고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훌륭한 크리스찬 미래 리더들을 좋은 대학에 많이 입학시키고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6학년 12학년)

[www.njuca.org](http://www.njuca.org)

## 문의 전화

TEL. (609) 954-2900  
73 Holmes Mill Rd.  
Cream Ridge, NJ 08514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정신 의학계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불 것 같다. 지금까지 정신질환 진단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 정신의학계가 발행하는 Psychiatric Association's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DSM)이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DSM은 정신과의 모든 진단과 연구의 지침이었다.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정부 주도 정신 연구기관인 NIMH에서 발표하기를 앞으로 우울증, 불안증, 양극성장애(bipolar disorder),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등 많은 진단 분야에서 DSM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실 NIMH는 정부가 주도하는 모든 정신질환 진단과 처방

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성경시대에 존재하지 않았고 현대에 이르러서 생겨났다고 한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정신질환이 죄의 결과인데 죄를 병으로 미화시켰다고 한다. Matt Stanford 박사는 그의 논문 "Mental Illness In the Bible"에서 성경에서는 현대에 정신 질환의 병명들을 사용하지 않지만 미친 것이나 정신질환은 성경시대에도 존재함을 증거한다. 예를 들어 미쳤다는 말을 보자. 구약에서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내리시는 재앙 중에 미침이 나온다(신28:28). 다윗이 불레셋에서 도망쳐 나올 때 미친 시늉을 한다(삼상21:13-15). 미친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고 매우 심각하다. 성경은 정신질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사울왕이다. 사울의 증상을 보면 현대의 정신질환의 많은 병명들과 연결할 수 있다.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당할 때에 다윗이 연주하면 악신이 떠났다고 했다(삼상16:23). 그의 증상을 보면 여호와와 신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고(삼상16:14), 불쾌하고 심히 노하며(18:8), 질투(18:9), 반역하고(15:11), 회개하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고, 부정적 형태로 자기와 말하고 (self-talk 18:11), 두려워하고(18:12-15), 상습적인 거짓말쟁이(19:6), 죄악된 생각을 행하고(19:2), 비이성적이며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20:32). 그렇다면 현대 정신의 학은 사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까? 현재의 DSM Standards에 의하면 양극성 장애, 정신분열, 반사회적인격장애(anti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할 수 있겠다. 성경을 보면 사울의 정신질환은 죄의 결과이다. 저주의 결과이다. 사울은 정신적인 병이 아

스한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읍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도 감동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다. 읍이 사울과 비슷한 또 다른 하나는 두 경우 다 악신이 관여한 것이다. 현대인들은 사단의 역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설사 생각한다고 해도 만약에 세속적인 정신과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의사는 말한 그 사람이 도리어 정신병에 걸렸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정신질환을 다 따귀와 연결해서도 안될 것이다. 신체적으로 필요한 화학적 요소들이 균형을 잃음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 아닌 신체적인 그러나 정신적 증상으로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 속에서도 현대적인 정신질환과 관계되는 증상들을 발견한다. 다윗은 우울증(depression 시32, 42), 엘리야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왕상19), 느브갓네살은 과대망상 정신병환자(psychotic delusional 단4), 이세벨은 아마도 인격장애 혹은 양극성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or



## 성경이 말하는 정신 의학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에 연구에 매해 15억불 이상 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최대의 기관이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함에 대규모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DSM의 임상적 정확성과 유효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예를 들면 집중장애결핍증 ADHD에 대한 규정과 약물오용 등은 논쟁의 이슈가 되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35%가 Adderall이라는 ADHD에 처방되는 Adderall을 처방없이 사용했다. 처방을 가지고 사용한 사람들도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금년 초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대학의 학기말고사 때에는 약물복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 정신건강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 전환을 위한 약을 복용하는 것은 거의 유행병 수준이다. 우리의 시대는 약물 오용시대, 남용 시대이다. 그럼에도 정신과 질환이 급증하고 있다.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은 정신건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잠26:18). 미친 것은 지혜의 반대라 했다(전1:17; 7:7). 느브갓네살이 형벌로 미치게 되었다(단4:32-34).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신약에도 사람들이 간질을 앓은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마17:15), 예수님의 식구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다(막3:21; 요10:20). 바울의 간증을 들던 베스도가 바울더러 미쳤다고 했다(행26:24-25, 고후11:23). 사람들은 성도들 보고 미쳤다고 했다(고전14:23). 성경시대에 개인이 비정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정신 질환에 대한 이해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현대의학은 이런 증상들을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독특한 형태로 구분시켜 놓은 것뿐이다. 현대의 모든 자료들은 정신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고 말한다. 2007년도 자료에 의하면 미국인 중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 76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자이다. 1987년에 나온 Prozac의 사용이 무려 30배가 증가되었다. 미국의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는 현실이

니라 사실은 영적인 병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이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정신질환이 하나님께 대한 죄로 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울의 범죄는 반역, 부정, 불신앙, 우상숭배, 말씀을 거부함의 죄이다. 그렇다면 모든 정신질환이 다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인가? 사울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또 다른 예는 읍의 고통이다. 읍도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다. 그의 증상을 보면 자기혐오(읍3:3, 10:1), 자살 경향 암시(6:9), 신체적 정신적 고통(6:10), 악몽(7:14), 이상(7:14), 망상증(Paranoia 7:19-20), 수치심(10:15), 망상(Delusional 13:26-27) 등이다. 그렇다면 읍은 오늘의 DSM Standards로 어떤 진단이 나올까? 전문가들의 소견은 아마도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PTSD, 정신이상을 동반한 심각한 우울증, 아니면 정신분열증 일 것이다. 아마도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읍의 치료를 위해서 사울과 비슷한 처방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사람의 증상을 가운데 비

bi-polar. 왕하9:2, 제2:20) 등 많은 경우를 발견한다. 신약에도 정신질환으로 진단할 경우들이 많다. 바울의 회심의 경험을 보면 빛에 눈이 멀고, 밑에서 떨어지고, 여러 날 소경이 되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다고 증거했다. 오늘 현대의 DSM standards에 의하면 바울은 개종장애(conversion disorder)와 정신병 psychosis으로 진단할 것이다. 현대인의 질병 중에서 화학적인 불균형으로 오는 신체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의 정신적 증상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바울과 베드로는 근심(빌2:28, 벰전5:7)에 대해서, 예수님도 격정 혹은 강박관념에 대한 해법을 주셨다(마6, 눅12, 눅21). 성경은 그 외에도 우리가 고민하는 수많은 증상들에 대한 해답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예수님을 믿는 정신과 의사의 고민을 들은 적이 있다. <16면으로 계속>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현재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지만 아직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을 안 가지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읽어나갈 수 있을까요?

**A:** 오래 전 고등학교 시절에 "초원의 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한 처녀가 자유분방한 기질을 가진 잘생긴 총각과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대학생 때 만나 서로 사랑합니다. 남자는 성격으로 자유분방하지만 여자는 결혼 전까지 성적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로 인해 헤어지게 되고 후에는 서로가 이상형이 아닌 엉뚱한 사람과 결혼해 살다가 늙어간다는 약간의 허무주의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는 처녀가 대학생 때에 강의실에서 교수에게 들었던 유명한 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이것은 벰전1:24절이었습니다. 과거의 아름다웠던 미모와 젊음, 연애시절도 지나가고 연애시절 때 그렇게 이상적이었던 남자도 세월이 흐른 후 보니 볼 모

### 성경읽기는 꿀송이 혹은 약으로 먹어야

양 없이 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싱싱하고 화려했던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서 풀과 같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도 정육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말씀의 절대적인 가치부터 먼저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 제거하고 비료도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잡초를 제거하고 뽑아주며 비료를 주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좋은 정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물을 주고 가꾸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결심하고는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을 먹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꿀로 먹습니다. 다윗은 성경말씀이 꿀송이 같이 너무 달콤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시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 꿀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2)약으로 먹습니다. 약간 쓰지만 억지로라도 약으로 먹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싫어도 약으로라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식욕이 없는 사람은 병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성경에 대한 식욕이 없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병에 걸렸다는 징조입니다. 병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약으로라도 성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묵상의 묵상이란 말은 영으로 매디테이션(Meditation)의 약(Medicine)이란 영어단어와 라틴어 어근이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어야 약이 됩니다. 먹어야 내안에서 화학 작용을 일으켜 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세상의 책들은 한번 읽으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읽어도 또 읽어야 하는 반복을 요구합니다.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공수부대원들은 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훈련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무식하거나 지능이 나빠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본능적으로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설 수 있는 것은 기고 반복적으로 걸음마를 한 결과입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것은 피스톤이 반복을 계속하기 때문이요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역시 심장의 반복적인 운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 On Campus Courses

### 2013가을학기 본교강의안내

#### Sept 30-Oct 4 (9월 30일-10월 4일)

DI 828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 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ct 7-Oct 11(10월 7일-10월 11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Online Courses (8 weeks)

### 온라인 강의(8주간)

#### A Session

• DI 803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B Session

• DI 829 Methods of Church Planting & Growth(교회 개척과 성장 방법론)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 Off-Campus Courses

### Sydney, Australia

• Aug 26-30(8월 26일-30일)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 Korea

• Nov 4-8 (11월4일-11월 8일)  
DI823 Cultures of the New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Matthew Harmon

### Los Angeles, CA

• Sept 16-20 (9월 16일-20일)  
DI 822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Eddie Kim(김의원박사)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회서신

버리는 사람 구하는 사람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한국의 중산층 가정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선천성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

다. 고아원에 맡겨진 그 아이는 4세 때 장애인만 골라서 입학해 온 미국인 음악교사인 리처드 베틀스 부에게 입양되어 미국으로 갔습니

다. 그 아이가 자라서 2001년 5월 21세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과 함께 로즈 장학생에게 주

어지는 유학 기회를 얻어 3년 간 영국의 옥스퍼드대로 가서 수리분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로즈 장학제도는 1902년 영국의 사회사업가 세실 로즈가 만든 것으로 학업성과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고려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01년도 로즈 장학생 선발에는 모두 950여 명이 지원해 그중 32명만이 뽑혀 30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선천성 시각장애와 그로 인하여 생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비참한 삶을 극복하고 미국 대학생이라든가 누구나 선망하는 영예의 '로즈 장학생'으로 뽑힌 한인 입양아의 이름은 자키리 베틀스(한국명 이정남)입니다. 자키리는 미국 펜실베

니아 주립대를 졸업하면서 수학과 프랑스어, 컴퓨터 등 3개 분야에 학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그의 드라마 같은 인생역정은 미국 피플지에 소개되어 미전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18세 때 우연히 생부를 찾아 처음으로 편지를 쓰기도 한 자키리는 "친부모가 자신을 버린 것이 오히려 '기회의 땅'에 오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2000년 6월에 자신의 여동생도 선천성 시각장애라는 이유로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자키리는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는 동생의 소재를 애대개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가진 재능이나 처한 상황보다 우리 중심과 영혼의 고귀함을 바라보십니다. 베틀스 부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면 세상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버몬트주, 하원서 존엄사 허용법안 통과

가장 없는 치명적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 의사의 극약 처방을 통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death-with-dignity) 허용법안이 13일 미국 버몬트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피터 슐린 버몬트 주지사는 이날 통과된 이 생애 중식 선택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버몬트 주는 미국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4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오리건 주와 워싱턴 주는 주민투표로 각각 1997년과 2006년에 존엄사를 허용했으며 몬태나 주는 법원이 존엄사 합법 판결을 내렸다.

버몬트 주 하원은 이번과 비슷한 법안을 2007년에는 부결시켰으나 이번에는 상원에서 마련해 통과시킨 법안을 찬성 75대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6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치명적 질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와 함께 요구해 독극물로 스스로 생을 조기에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존엄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의사 두 명의 진단, 환자의 정신이 온전하다는 판단, 극약 처방 시행 이전 17일간의 숙고 기간 의무화 등을 규정했다. 주민투표가 아니라 주의회 입법 과정을 통해 존엄사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동성결혼법안 합헌 결정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17일 동성애자들의 결혼과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동성결혼법안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한 프랑스의 동성결혼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TF1 TV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문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언론은 앞으로 수주일 안에 첫 동성 결혼식이 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라질, 동성결혼 합법화 대열 합류

브라질에서도 동성결혼이 사실상 합법화됐다. 15일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사법협의회(CN)는 전날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동성 간 혼인 신고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찬성 14표, 반대 1표로 승인했다. 사법협의회는 각급 법원의 활동과 역할, 법률 해석을 자문하고 감독하는 사법부의 독립기관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은 연방대법원장이 겸직한다. 협의회의 결정문은 연방대법원(STF)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례를 남긴 바 있어 협의회의 결정문이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브라질 헌법은 신뢰할 만한 '시민적 결합(civil union)'이 결혼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동성 부부가 일반 이성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후 지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현재는 전국 2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지난 2010년 7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령을 공포했고 이후 동성결혼 부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도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7월 중순에는 첫 번째 합법적인 동성 부부가 탄생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있다.

한국인들, '의외로' 타인종에 배타적

한국이 타인종에 의외로 배타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 세계 각국 사회과학자들이 8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를 토대로 국가별 인종적 배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WVS에서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은 부류'를 특정하라는 질문에 '타인종의 사람'이라고 답변한 빈

도를 인종적 배타성의 척도로 삼아 국가별 수치를 종합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3명 중 1명 정도가 타인종을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타인종의 이웃을 거부한다는 답변 비율이 30%를 넘긴 것은 동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다.

WP는 한국이 상당히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민족적 갈등도 없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외의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일민족성에 대한 한국인 특유의 강한 자부심, 그리고 최근 동남아시아권에서 온 이민자의 급증, 이웃나라 일본과의 오랜 역사적 갈등 등이 맞물리며 나타난 결과로 분석했다.

이 밖에 전체 조사국 가운데 방글라데시(71.7%)가 타인종에 가장 배타적인 것으로 조사됐고, 요르단과 인도도 뒤를 이었다. 반면 오랜 이민의 역사로 인종의 다양성이 높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과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가장 타인종에 대해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종·민족적 갈등이 계속되는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유럽 등 서방권보다 타인종에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다.

영국 이성 '동반자 관계' 허용 논란

동성결혼 합법화 작업이 추진되는 영국에서 동성 커플을 위한 법적 지위인 '동반자 관계'(civil partnerships)를 이성 커플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17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이 커진 마당에 법적으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반자 관계를 동성 커플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논쟁의 출발점이다. 인권단체들은 앞으로 합법적인 결혼과 동반자 관계의 두 가지 선택권을 갖는 동성 커플과 달리 이성 커플은 동반자 관계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결혼 제도에 반발하는 일부 이성 커플은 결혼보다는 동성 커플을 위해 만들어진 동반자 관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당 팀 루턴 하원의원은 이에 따라 현행 동반자 관계를 모든 커플로 확대하는 관련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보수당 일부 의원진을 비롯해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의원들은 이런 방안을 대체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결혼 체계를 결혼과 동반자 관계로 이원화해 결혼 기회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전통적인 결혼의 개념이 송두리채 바뀔 수 있으므로 줄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에 따라 충분한 의회 논의의 기간을 거

쳐 필요한 법 개정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대변인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동반자 관계를 이성 커플에게 허용할지, 제도 자체를 폐지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2005년부터 동성 커플에게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동반자 관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시행을 목표로 동성결혼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 2060인종지도 바뀐다...

불과 몇십년 후면 미국에서 이민자가 인구 자연증가수를 앞지르는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주류 인종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지난해 기준 미국 인구의 63%)이 미국 사회의 주류 인종이지만 2041년에서 2046년 사이에는 이들이 소수인종으로 전락한다.



반대로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을 제외한 현재의 소수 인종들은 2060년경엔 미국 사회의 55.9-58.8%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해에는 미국 인구의 37%를 차지했다. 또한 그에 앞서 아동층에서는 당장 5-6년 내에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 아동이 미국 사회 아동인구의 주류 자리를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은 15일 이같이 밝히며, 이민자수가 인구 자연증가수를 추월하는 것은 200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최근 진행된 세 가지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이민자수의 규모에 따라 미국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요인이 2027년에서 2038년 사이에 바뀔 전망이다.

미국에서 인구 자연증가수는 인구조사국이 거주자들의 출생국 정보를 모으기 시작한 1850년 이래 미국의 인구증가를 이끄는 주된 이유였다.

인구조사국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많은 이민자가 미국 사회에 유입됐다"면서 출산을 감소, 베이비부머들의 고령화, 이민자수 증가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미국 사회의 미래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수의 증가는 빠른 성장과 인종의 세분화, 청년 인구의 증가 등을 의미한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총 인구는 2060년이면 3억9천270만 명에서 4억4천24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지난해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수는 70만2천-74만7천명인데, 2060년이면 82만4천 명부터 160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 인구의 5.1%를 차지한 아시아인종은 2060년이면 7.3%에서 9.0% 선으로 증가하고 지난해 17.0%를 차지한 히스패닉계통은 같은 시점에 29.9-31.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정기 기도성회

일시 : 5월 16일(목, 저녁) ~ 23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 (818) 306-4912

강사 :



조성국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원로·은퇴목사 초청 오찬

2013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 초청인원 : 70명
- 문의 : (818) 306-4912
- 주최 : 미주 갈멜산기도원
- 협찬 : 미주 크리스천신문 남가주 기독교원로목사회 남가주 목사회



# 제 28회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의를

## 주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황 의 영 목사

(SBM 대표)

들으라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신6:4-9) (4)  
“Hear, O Israel” – Word of Life to Our Next Generation!

6. 유대인 교육의 초점과 그 효과

1)유구한 역사적 배경에 철저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역사를 큰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오랜 역사적인 전통은 쉽게 단절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여년간 종살이하던 것과 출애굽사건을 기억하고(신5:15) 박해가 극심해도 그럴수록 영성과 정신무장은 더 견고하게 다져갑니다.

2)모든 이론교육은 반드시 실제와 조화를 이룹니다.

어려서부터 실천훈련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생활문화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Text(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

각합니다. 3)능동성과 창의성 계발을 촉진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갑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이기에 학습과정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또한 모든 면에 진취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줍니다.

4)자신을 성찰하며 생활태도를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하

고 개선점을 찾아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도덕성이 강화됩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

다. 겹도 씹지 않아요. 자세와 복장이 단정하여 구별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는 성별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5)자부심과 자신감을 통해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각계각층에서 전 세계에 영향력

을 행사합니다. 예를 들면 뛰어난 두뇌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상술(商術 a trick of the trade)이 능란하여 돈도 잘 벌니다.

C. 우리에게 당연한 교회교육의 과제

이제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값진 신앙을 이어가도록 추구하는 책임을 어떻게 잘 감당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봅시다. 먼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해봅시다. 실상과 문제점들을 파악해야 종합적인 처방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가. 세속화 되어가는 오늘날 교회교육의 문제점

1. 전통을 세우려는 신앙교육의 사명감과 의지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1)지도자들이 영적 권위와 지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자녀교

3)목적의식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4)가장 이상적인 교육 자료를 개발할 줄을 모릅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여 타인이 연구한 교재를 거부하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5)유형에 매우 민감합니다. 물질문명과 세속문화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그런 와중에서 한편으로 이단사설(異端邪說)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 일방적인 주입식교육(설교형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지식위주의 교육을 고집합니다. 머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2)성경공부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습니다. 흥미를 잃고 있습니다.

3)구체적인 실천훈련이 거의 없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4)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못하여 현장교육이 와해되고 있습니다.

1)이상적인 학습방식을 도입하지 못하여 변화가 없습니다.

2)학습자들의 능동성이 약화되고 창의력이 퇴보됩니다.

3)강요하면 도리어 반항심이 싹터서 역효과를 보입니다.

4)흥미 위주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은 교육의 본질을 흐립니다.

5)뿌리가 빈약한 상태에서는 언제 어떻게 흔들릴지 모릅니다.

\* 시간이 걸려도 성경적인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기초를 튼튼히 닦는 교육을 야무지게 시행해야만 합니다.

4. 너무 상황에 좌우되어 전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속문화에 이끌려 차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상실해갑니다. 특히 이민교회와 가정은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나 커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이 고조됩니다. 이로써 전통을 수립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5. 신앙생활의 핵심인 십자가를 멀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십자가가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십자가와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고난주간에 단 하루라도 가족 전체가 기쁜 마음으로 금식하며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전통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메일: sbm01@hotmail.com (다음호에 계속)

## 한국교회교육, 전통적 신앙교육 사명감 의지 결여, 상황에 휘둘려 교육철학과 방식 터득 못해 현장교육 와해...십자가 멀리하는 경향

육을 위해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육의 문제점도 큼니다.

2)가정(부모)과 교회(목회자, 교사)가 생명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중차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성을 잃고 피동적으로 움직입니다.

5)부담감이 가중됩니다. 거부감으로 바뀌어 핑계를 대고 회교를 떠납니다.

3. 교육철학과 방식을 터득하지

### 칼럼 음악목회 (5)

####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Knott's Berry Farm에서 Church Music Festival이 있었는데 비싼 입장료를 내고 참석을 했습니다. 나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Theater마다 그룹사운드에다가 Rock Music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귀가 떨어질 나날 정도로 굉음을 내는 전자악기 소리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로 나오는 그들의 거칠고 묘한 소리는 그렇다고치고 청중을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강한 리듬이 마치 망치로 머리를 치는 것만 같았는데 연주하는 가수들이나 청중이 함께 미처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강한 리듬에 맞추어 춤을 추고 뛰다보니 열이 나고 더위지나기 옷을 벗어던지고 몇 시간을 해대는데 정력도 좋지만 과연 그들은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위하여 노래를 하는 것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도취요 하나의 최면일 뿐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것이 라면 최소한의 거룩은 있었어야 했습니다. 내가 미국문화를 이해 못 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은 만국의 언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악은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상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향락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인간본위의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시편150:4에 “소고치며 춤

추어 찬양하며”라고 하였는데 혹은 이를 인용하여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반문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그들이 예배의식에서 춤을 춘 것이 오늘날의 춤처럼 질서도 없고 어떤 규칙도 없이 제멋대로 기분 나는 대로 흔들며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는 춤이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춤은 하나의 Physical Language로서 규칙적인 율동과 함께 합창으로 동작하는 성스러운 춤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춤을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질서하지 않았을 것이며 인간의 향락을 위한 방법으로 춤을 구사하지는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진정해야 합니다. 절제 없이 감정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Black Swan이

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자기 예술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자해하고 죽으로 끝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와 정과 의가 균형이 잡힌 신앙생활은 물론 예배도 찬양도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찬양집회를 보면 TV에 나오는 Rock Show를 방불케 하는 무질서한 광경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그룹사운드의 몸짓도 문제가 지만 앞에 나와서 춤을 리드하는 남녀학생들이 배꼽 T셔츠를 입고 나와 제멋대로 흔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리더들을 따라서 같이 흔들고 춤을 추는 학생들의 묘한 고함소리와 자극되는 높은 고음의 괴성을 내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찾아볼 수 있느냐는 말인가?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으로서 정말 옳았다면 왜 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손에 자동차의 핸들이 쥐어졌을 때 교회 안

에 머물지 않고 회교를 떠나는가? 말입니다.

찬양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지 주체가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열기를 더하고 열심을 내어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진정한 찬양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질문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락Rock을 부르는 가수나 한국의 가요를 부르는 가수는 찬양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물론 그들은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음악도 거듭나야 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연락처: 714-699-0210

# JoyLA.com

Sale

##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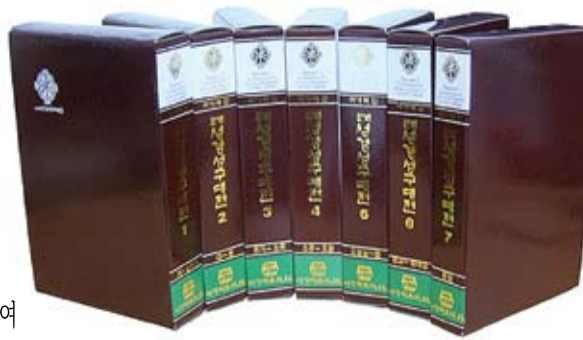


32 Set 한정특가판매( 1set 12권)

## 이끼완벽 성경 성구 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 1권:가~남하스
  - 2권:다~못
  - 3권:못가~소위
  - 4권:소위~오늘
  - 5권:오늘날~종
  - 6권:종교~히데델
  -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 크로스웨이 1권~5권
- 크로스웨이 사례집
- 크로스웨이 오디오CD
- 크로스웨이 수료증
-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37. 역청의 기원

노아의 방주는 현대와 같은 철선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상자(box)였다. 그러므로 그 상자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하셨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다(창6:22). 그래서 방주와 관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노아 당시에 역청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역청은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석유는 노아홍수 때 생물(동물 혹은 식물)이 땅에 묻혀 생겨났다고 믿기 때문이다.

### 1. 역청(歷靑)

역청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면 설명이 무척 다양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넓은 의미로 전문가들은 석유, 혈암유, 천연가스, 석탄, 그리고 이것들의 가공물 등의 광물질을 다 역청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그 원 재료가 생물체의 잔재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역청이라 하면 아스팔트(asphalt)와 타르(tar)를 말한다.

아스팔트는 원유의 휘발성 성분이 다 빠져나간 찌꺼기다. 이것을 석유 아스팔트라 부르는데 천연적으로 발견되는 아스팔트도 있다. 아스팔트는 성분이 극히 복잡하여 화학적인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 석유 아스팔트는 비교적 불순물이 적어 도로포장이나 방수처리에 사용된다. 반면에 타르는 그 유기물인 원료들이 열을 받았을 때 분해되어 증발되는 복잡한 화학성분으로 점성을 갖고 있는 검은 액체다. 석탄에서 만들어진 타르는 콜타르(coal tar), 나무에서 만들어진 타르는 목타르(wood tar)라고 부르며 발암물질이기는 하지만 소독 등 의학적인

용도에서 시작하여 음식, 화장품, 방수처리 등 종류에 따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성경에는 '역청'이란 단어가 다섯 곳에서 나오는데 영어로는 pitch(창6:14; 사34:9), tar(창11:3; 창14:10), 혹은 tar and

## 방주건조에만 언급된 고페르(역청)가 가공 나무일 가능성 1천년전 선박건조에는 나무 진에 숯가루 섞은 역청 사용



### 역청 속에 숨겨져 있는 성경의 역사

좌측 사진: 라 브레아 역청 구덩이에서 화석들을 발굴하고 있는 장면이 비참했던 과거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이 흑암의 역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pitch(출2:3)로 번역이 되어있다. 자연적으로 생긴 '타르 구덩이(tar pits)'에는 실제로 증류된 타르가 아니라 아스팔트가 들어있으며 '아스팔트 구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한다. 또, 아스팔트는 피치(pitch)라 불리기도 한다. 타르와 피치는 자주 혼동해서 쓰이고 있는데 피치는 타르보다 더 단단하여 고체에 가깝다.

### 2. 고페르 나무와 역청

과거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방주의 재료를 '잣나무'라고 번역하였다(창6:14). 영어성경은 'cypress wood' 혹은 'gopher wood'로 번역을 하였는데, 히브리 성경은 고

페르(gopher) 나무로 되어있다. 최근 번역된 개역개정에서는 히브리 성경과 같이 '고페르 나무'로 번역을 하였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 있는 이유는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 밤나무, 밤나무 같은 나무의 한 종류가 아니라 합판처럼 가공된 나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학자들도 있다.

유일하게 방주건조에만 언급된 고페르가 가공된 나무일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방주는 조그마한 상자가 아니라 길이 135m, 폭 22.5m, 높이 13.5m나 되는 대형 건조물이다. 나무를 켄판 한 겹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면 구조의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얇은 판재를 합판처럼 여러 겹으로 된 목재를 사용하게 된다면 같은 두께라 할지라도 그 내구성은 한 겹의 판재와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노아는 얇은 판과 판 사이에 에도 역청을 발랐을지도 모른다. '고페르'를 가공된 나무처럼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단어가 품고 있는 언어적인 것이다. 윈

있었던 것이다.

3. 노아는 어디서 역청을 구했을까?

'역청은 결국 생명체가 고온 고압을 받았을 때 생겨나는 것인데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석탄과 석유가 노아홍수 때 묻힌 식물들이 기원이라면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역청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영리한(?) 혹은 전문가적인 질문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 '성경은 앞뒤가 안맞는 책'이란 믿음이 들어있기 마련이고 '성경은 사람의 해석이 필요한 책'이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 명령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청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유럽에는 성씨(姓氏, family name)들이 참 다양한데 그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폴란드의 Smola, Smolander, Smolen, Smolenski, Smolarz, 독

일의 Teer, Teerman, 영국에는 Pitcher, Tarrier 또는 Tarmen 등이 모두 다 역청(폴란드, 독일, 영어로 각각 smolar, teer, pitch)과 상관이 있는 것들이다. 아직 현대의 역청이 사용되기 1천년전에 그들은 역청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판매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대형 조선 산업이 번창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떻게 그 역청을 만들었을까?

그들이 역청을 만들었던 방법은 나무의 진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나무에 상처를 내면 나무 진(수지)이 나오게 된다. 이 수지와 숯을 가루로 만들어 섞으면 역청이 만들어진다. 지난 1천년전에는 선박건조에 이런 역청이 사용되었다. 노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역청을 만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것보다 훨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술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피라미드나 초기 인류의 고대문명이 간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거나 철기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노아시대는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구석기 시대와 다르다. 노아 당시는 지금과는 다른 첨단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4. 라 브레아 역청구덩이

LA시내에 있는 빙하시대를 주제로 한 PAGE 박물관이 있다. 그

옆에는 여기 저기 역청구덩이들이 있는데 지금도 그 속에서 빙하시대 동물물 화석 발굴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다. 진화론자들은 동물들이 모르고 지나가다가 역청구덩이에 빠져죽어 화석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수만 점의 새와 육지동물 화석들이 발견되었지만 그 화석들은 온전한 것이 없다. 다 부위별로 부서져 있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다. 빙하시대 해빙기 때 갑자기 발생한 홍수에 쓸려오면서 부서진 동물들이 합장되어 동물들의 살점이나 식물들이 역청

으로 변했을 것이다. 역청은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지만 그 역사를 보면 더 몸서리치는 이 야기들이 숨어있다. 노아홍수의 대격변과 빙하시대의 격변을 통해 남겨 놓은 흑암 같은 인류의 죄에 대한 증거물들이다. 이런 흑암의 나라에 영원히 살지 말라고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시고 희생하신 창조자 예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존귀한 인생됨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인생을 만들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각자 인생에게 자기만의 아름다운 것을 심어주시고 그것으로 형제와 더불어 기쁘게 사는 도구로 주신 하나님. 문제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서 끌어내어 이기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공급자, 나를 지키시는 자, 나를 유지해주시는 분, 나의 산성, 나의 안전지대,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

애절히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옆드려져 부르짖습니다. 주님! 당신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내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세요. 좁디좁은 마음의 지경을 넓어지는 이해의 복을 주세요. 천국 소망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세요. 주님 손잡아 주세요. 손을 꼭 잡아 도와주세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동행하도록 이 마음을 주님의 지성소로 드립니다.

매어있는 감당 못하는 문제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어리석은 세상 근심에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주님의 마음이 다스리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모두를 품는 사랑의 복을 넓혀 주세요. 만나는 모두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랑스러운 자되는 복을 더하여 주세요.

저의 삶을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바꿔주소서! 내 안에 내리는 당신의 평안이 변하여 기쁜 소식이 되어 흘러 넘쳐 생기를 불어넣는 복의 강물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한 심장이 되어 아꼐 골짜기의 바삭 매마른 뼈다귀들 같은 바삭 마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기가 들어가고 여호와의 군대들을 만드시는 당신의 영광스런 부르심에 예라고 답합니다. 탈진해 지쳐 떨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는 당신의 애절한 섬김에 저의 전부를 드리며 당신과 함께 바라보며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나는 문제들에게 먹지 않겠습니다. 넌 실패한 생각이야... 못한 인생이야... 놀라대는 뱀에게 물려도 독을 마셔도 더 이상 먹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만을 기뻐함으로 비상하여 부활하신 나의 왕 주님과 함께 평안으로 다스림을 누리렵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께서 천국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렵니다. 마음을 짓눌러 오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되렵니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전부의 사랑을 드립니다. 승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도록 세을 이들에게로 인도하소서. 여호와 너시!

#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신규주문서적을 포함한  
모든 서적!!!!!!

# SALE

잡지, CD 등 일부품목 제외

# 40%

+ TAX

문의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대마도**

1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매시지 대마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세계민방에 알린다.

**고령화 가족**

노년과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

**배를 엮다**

일본 시인인 1위, 예술감독의 소망 1위, 여배우, 배우, 작가, 감독, 그리고 20여 년의 활동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새로운 대표작

**권력의 조건**

권력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권력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권력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에메랄드**

1억 원의 고액 2013년 세계문학상 대상작

**래디컬**

RADICAL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Tongue Fu!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을 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3저 밥상**

건강하고 맛있는 밥을 위한 최선의 방법

**자연주의 태교 밥상**

자연주의 태교를 위한 최선의 방법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바라보는 구두를 신어라**

바라보는 구두를 신어라

**베스트셀러  
최신간 포함  
40%  
SALE**

저희 한국서적에서는  
책자 만드실 분들께  
한국에서 제작하여  
뉴욕으로 배송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해  
납품해 드립니다.



# “영적예배 드리고 청지기 사명 감당” 강조 나침반교회, 장영춘 목사 강사로 제작세미나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가 지난 19일 장영춘 목사(뉴욕퀸즈장로교회 원로/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를 초청, 일일집회 및 제작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현신의 원리’, 2부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나누어 진행된 제작세미나에 나침반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참석해 장영춘 목사의 강의를 청취했다. 현준집사 기도, 이정의 집사의 성경봉독으로 시작된 1부 세미나는 로마서 12:1-11의 말씀을 토대로 현신의 원리를 풀어나갔다.

장영춘 목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예배를 등한히 해서는 안되며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예배를 드리라. 예배에 실패하면 실패한 삶이 되고 만다. 예배의 중요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제작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본지발행인인 장영춘 원로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성을 인식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실한 일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돼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잘 알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야하며 교회와의 관계도 아름답게 성립돼 목회자를 잘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특별히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진행된 2부는 현준 집사 기

도, 정미숙(1)집사 성경봉독이 있었으며 장 목사는 고린도전서 4:1-2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다 이 은사들을 내 맘대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를 통해 장영춘 목사는 ‘예루살렘의 딸아 너희자녀를 위해 울라’(눅23:26-30)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나침반 교회는 현재의 예배처소(1200 W. Lambert Rd. Brea)로 이전 후 부흥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라는 표어 아래 ‘온성도 제자훈련’으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양육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 재미총신동문회 원로은퇴목사 초청 잔치

재미총신동문회에서는 2013년 어버이 주일을 맞아 13일 오전 11시 남가주 리디미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에서 원로 은퇴 선배목사들을 초청, 축하잔치를 벌였다.

1부 예배는 지윤성 목사(안디옥장로교회 담임)의 사회, 이시영 목사(부화성)의 기도, 서기 광숙목사 성경봉독, 오위영 목사(LA은혜교회)의 특별찬양과 동문회 회장 정교영 목사가 “부모에게 효도”(잠 23:22-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회계 김요섭 목사의 환



재미총신동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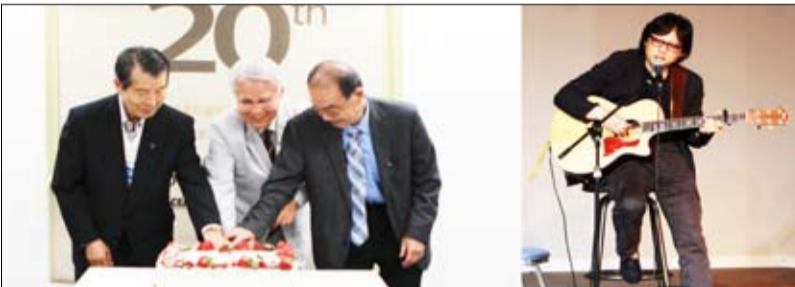
영사와 총무 서준은 목사의 광고에 이어 강영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만찬은 김상규 목사(안디옥교회 원로)가 식사기도를 했으며 안디옥장로교회와 남가주리디미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재미총신동문회)

# 북한 어린이위한 사랑의 영양쌀 포장행사

북한 어린이를 위한 사랑의 영양쌀 보내기 행사가 뉴욕일원의 교회와 비영리단체 공동으로 이뤄진다. 영양쌀은 쌀과 함께 닭고기 분말, 콩가루, 말린 야채 등 30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간 쌀로, 쌀 구입은 뉴욕중부교회, 포장작업은 한인사회, 포장용 기계제공은 FMSC(Feed My Starving Children), 운송비는 NAFEC(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가 담당한다. 북한 어린이 6명이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387그램씩 나눠 포장하는 일로 6월 7일(금)오후 3시-8시, 9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6시30분 이틀간 7백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이번 영양쌀 포장에는 15만개의 영양쌀이 만들어진다. ▲문의: (718)279-2757



LA기윤실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왼쪽은 기념식을 마친후 기윤실 관계자들이 케익을 자르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노래하는 시인 홍순관의 축하공연 모습

# “건강한 교회 힘써 기독교가 신뢰받도록”

LA기윤실 설립20주년 기념식...홍순관 축하공연도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 허성규, 홍진관) 설립 20주년 기념행사가 18일 오후 5시 마음이가 난한사람들의교회(담임 채동선 전도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박상진 LA기윤실 간사의 사회로 열린 1부 기념식은 이창우 목사(신행위원)가 기도를, 허성규 교수가 환영사, 김기대 목사(영화의교회 담임)가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며, 유용성 장로(실무책임자)가 “지나온 길”이라는 제목으로 20년간의 기윤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이현준 목사(신행위원)의

# 나성소망교회 임직감사예배, 26일 새생명가족축제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울 목사)가 지난 19일 임직식을 갖고 10명의 임직자를 세웠다. 임직식에서 김재울 목사는 사도 행전 2장 1-8절을 본문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나성소망교회가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안팎으로 LA 이민교회의 큰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가진(로드랜드대학교 이사회 임직자)은 다음과 같다. △명예장로: 홍중구 △인수집사: 오영택 김재수 △권사: 오미자, 이수지, 이순영, 배티김, 장정현, 임계연, 유순녀. 한편 동 교회는 26일(주) 오전 11시 “새 생명가족축제”를 나성소망교회 본당인 원서파크중학교에서 갖는다. 자세한 문의는 (213)550-7377, 380-0258로 하면된다. (기사제공: 나성소망교회)



그레이스 대학교 및 신학교 2013년도 불학기 학위수여식 모습

# 그레이스신학대학원 2013년도 학위수여식

한인박사 18명 배출, 총장 이취임식도 열려

인디애나 주에 소재한 그레이스 신학교(총장 로널드 매너한 박사)는 지난 11일 위노나 레이크에 있는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18명의 한국인 박사들을 배출했다. 개교 76주년을 맞이한 그레이스신학교는 학사, 석사, 박사 358명을 배출하는 성대한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지난 20년 동안 그레이스 대학/신학교에서 총장으로 재직했던 로널드 매너한 박사가 정년퇴임을 하고, 신

임 총장인 윌리엄 카티프 박사가 제6대 총장으로 취임하는 순서도 있어서 그 의미가 더해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한국 목회자와 선교사 18명이 선교학과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편 13일부터 2주간에 걸쳐 선교전과 상황화 강의를 진행했다.

▲학교문의: 김정은 박사-parkrc@grace.edu (기사제공: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b> 담임목사: 전희수 교역자: 케티리언 주일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Tel: (718)359-7883, 직통: (646)270-9771 41-44 149th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ory@yahoo.com	<b>뉴욕갯세마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2부예배: 오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새벽기도회: 오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ny.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기도회: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주일 낮 기도: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2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새)예배: 오후 8:30 금요일(신)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ell: (917)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och.com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36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b>뉴욕요신장로교회</b>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이른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오전 12:00 5부예배: 오후 1:30 6부 BM&M: 오후 3:00 7부예배: 저녁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Tel: (718)762-5756, 2525, Fax: (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b>뉴저지성도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후 5:40(월-금) 금요일예배: 오후 8:30 주일기도회: 오전 11:00 (매주1주, 3부)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수 요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b>신한장로교회</b>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전 1:00 영아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2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pcq.org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후 1:30 NCF 영어: 오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j.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6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km@gmail.com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남부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주일 8: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8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b>덴버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b>벤델교회</b>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45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4)461-1235, Fax: (414)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 한영예배: 오전 10:15 (월-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월-토)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월-토)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월-토)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	<b>볼티모어교회</b>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Tel: (410)337-8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b>샬럿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2부예배: 오전 10:45 주일3부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주일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경음)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예배: 오전 6:30 Tel: (206)527-069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attle.org	<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jlc.com	<b>앵커리지델린교회</b>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소델린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ljl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b>큰무리교회</b>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www.josephsonvision21.org 메신저: (213)665-0009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b>타코마 삼일교회</b>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53)55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b>타코마새생명교회</b> 담임목사: 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7:00(한/영)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5-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수명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b>템피자교회</b>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kpcas.com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영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cupc.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란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합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동부교계 게시판



UMC한인총회 청소년연합수련회

UMC한인총회 영어목회부가 주최하는 청소년연합수련회 4 Christ Mission New York이 "Light the Fire Again" 주제로 5월 31일(금) 오후 7시, 6월 1일(토) 오후 6시, 6월 2일(주) 오후 2시 퀸즈중앙감리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폴 서 목사(CHRISTMISSION 설립자)로 2012년 뉴욕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청소년집회 강사를 역임했다.
▲문의: (646)541-0938 케니리 목사

퀸즈장로교회 청년부 콘서트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하라예찬 주관으로 어린이 찬양집회 "Jesus is My Super Hero"가 6월 8일(토) 오후 7시에 열린다.
▲문의: (718)886-4040

패밀리터치 기금모금 음악회

가정사역단체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 기금모금 음악회가 Sonata Da Chiesa(소나타 다 끼에자)와 함께 6월 9일(주) 오후 6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한국일보가 후원한다.
▲문의: (917)698-6065, 968-7077

필라교협 이단대책 세미나

필라델피아지역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동배 목사)가 주최하는 이단대책 세미나가 오는 29일(수) 오전 10시부터 벨엘교회(담임 안재도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한선희 목사(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로 "다락방(류광수)과 평강제일교회(박윤식)에 대해 강의한다.
▲문의: (267)307-1757

선교기금모금 골프대회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주관으로 열리는 선교기금모금 골프대회가 6월 3일(월) 오후 12시30분부터 Clearview Park(202-12 Willets Point Blvd, Queens)에서 개최된다. 진행방식은 샷건방식이다.
▲문의: (718)639-3021, 229-2570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설립33주년을 맞아 6월 9일(주) 오후 5시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 음악회'를 연다. 음악회에는 뉴욕장로성가단, 소프라노 이유나, 뮤지컬 '히즈라이프'의 랜디 브룩, 엘리야중창단, 퀸즈랜드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한다.
▲문의: (718)279-2757

평창올림픽 성공개최기원 족구대회

뉴욕강원도목사회가 주최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족구대회가 6월 3일(월) 오전 10시 알리폰드 파크(후문)에서 열린다. 참가 대상은 뉴욕교협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지역별 대항으로 우승(트로피와 500달러), 준우승(트로피와 300달러), 3위(트로피와 100달러)까지 시상한다. 행사는 1부 예배, 2부 족구대회로 점심을 제공하고 겸품추첨이 있다.
▲문의: (646)287-7169

[정정] 제1433호 10면 게시판 '뉴저지 늘샘교회 2대 담임목사 취임예배' 기사 중 교회이름을 늘샘교회(늘푸른생명나무교회)로 수정합니다.

뉴욕교협 산하 이단대책협의회 첫 모임

각 교단대표 구성, 회장 최창섭 목사 등 임원선출



뉴욕교협 산하 이단대책협의회 첫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주최 김명용 교수 초청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단과 요한계시록" 제목으로

뉴욕교협, 김명용 교수초청 이단대책 세미나

뉴욕교협(회장 김종훈 목사)이 주최한 김명용 교수 초청 이단대책 세미나가 20일 오전 9시부터 플러싱 급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김 박사는 이날 "이단과 요한계시록" (계13:1-2)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계2:10)'임을 강조하며 주기철 목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김 박사는 "한국은 이단의 온상 같이 온갖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단문제의 60-70%는 종말론과 관련돼 있다. 요한계시록을 신비의 책으로 보고 말세론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7년 환란에 대해서도 3년이며 무리에 등장하는 1000년 왕국과

비교해서 '잠시와 영원'이라는 대립속에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인 '희망의 역사관'이 형성되는 것"이라며 "희망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희망을 예언하는 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목사들이 먼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 성도들에게 한 달만 가르치면 이단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말했다. 한국 장신대총장인 김명용 박사는 독일 튀빙겐대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5년부터 장신대에서 교수 및 학생처장, 신학교장, 대학교학처장, 기획처장, 신대원장,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세미나는 총무 현영갑 목사 사회로 최창섭 목사(이단대책위원장)의 기도 후 김종훈 목사가 강사 소개를 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에일장로교회 설립 20주년 기념 임직식 찬양제 및 CD 제작, 부흥회, '룻' 공연... 행사다양

뉴욕에일장로교회(김종훈 목사)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가졌다. 임직자는 △집사인수: 김창욱, 정재남, 김광남, 강성식, 오성섭, 김동환, 박용훈 △권사: 김필중, 김미향, 이연희, 천매자, 김경숙 △집사: 지장유, 서병구, 김종수 씨 등 총 15명이다. 20주년 감사예배 설교는 한국 장신대 총장 김명용 목사가 "복의 요람인 교회"(마22:34-40)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

고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을 전했다. 또 이날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다. △신학생: 신경호, 유명근, 최스테파니 △고등부 졸업생: 김하은 외 15명이 받았다. 뉴욕에일장로교회는 20주년 기념으로 축하 찬양제 및 CD 제작, 지용수 목사 초청 부흥성회, 기념예배와 임직식, 드라마 '룻' 공연, 필리핀 기념교회 건립 등 사업을 펼쳤다 <유원정 기자>

사 △회계 이지용 목사로 결의했다. 최창섭 목사는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하고 다음 모임에서는 정관채택과 분과조직 및 구체적 사역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뉴욕교협내 이단대책위를 대신 한다 ▲미동부이단대책위원회에는 뉴욕대표로 이대협이 참석한다 ▲교협 산하지만 단독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경건회는 이만호 목사의 기도 후 최창섭 목사가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 사역자들을 불러 전한 말씀인 사도행전 20:28-3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목사는 ①자기와 양떼를 위해 자기 성찰/관리를 해야 하며 ②감동자로 돌봄과 보살핌이 있어야 하고 ③은혜의 말씀으로 신앙을 세우게 해야 한다"며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사단과 이단의 미혹을 방지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자"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안창의 목사 명예은퇴목사 추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과 교우들께 감사...기도하겠다" 안창의 목사 명예은퇴 감사예배 및 추대식

퀸즈중앙장로교회(PCUSA 뉴욕서노회 소속) 안창의 목사 명예은퇴 감사예배 및 추대식이 지난 19일 저녁 동 교회에서 열렸다. 답사에서 안창의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우님과 참석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히 말했다. 이날 뉴욕교협과 뉴욕목사회, 미동부지역장신동문회, 뉴욕에일장로교회, 아멘넷USA, 패밀리터치 등이 안 목사에게 감사패 및 공로패를 증정했다. 예배는 조원태 목사 인도로 기도송병기 목사, 성경봉독 도널드장/전희수 목사, 찬양 찬양대, 말씀선포 김남수 목사, 헌금기도 이희선 목사, 헌금송 신동기 집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사랑"(삼상9:6) 제목의 설교에서 "같은 시대 같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신 안 목사님의 은퇴예배에 설교를 하게 돼서 기쁘다" <유원정 기자>



뉴욕에일장로교회 임직식

미주한인이민110주년기념

한인큐반 청소년 모국방문 초청 경비마련 골프대회

Fundraising Golf Tournament for the Korean Cuban Youth

미주한인전국재단에서는 미주한인이민 110주년을 맞이하여 107년전 모국을 떠나 멕시코를 거쳐 큐바로 떠난 288명의 한인큐반 후손들의 삶을 찾아 나섭니다. 노예와 같은 삶가운데서도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군자금을 보냈던 이들의 후세들입니다. 반세기 이상 공산권사회속에서 살아온 한인큐반 청소년들을 모국방문초청을 통하여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주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한인큐반청소년 모국방문초청경비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참여하여 주셔서 뜻있는 골프대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3년 6월 20일 목요일 오후 12시 샷건
● 장 소 로스트 캐년
● 연락처 미주한인전국재단 전국사무실 : (305)576-9001 uskorea@att.net
● 참가비 100불
● 상 품 다음 호에 발표
★ 입상자에게는 이쁜 액자에 기념상장과 상품을 본 재단의 상임 고문님이신 임용근, 신호범, 김창준 의원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래된 5선의원 임용근, 워싱턴 주 상원의회 부의장 미주한인전국재단 상인고문 신호범, 연방 3선의원 김창준,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워싱턴대학교 총장 송정명,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지용덕

- 공동준비위원장: 김정국 프르, 잔길, 달라스김승현 회장, 캔사스정영로 회장, 휴스틴정정자 회장, 마이아미노재승 회장
● 운영위원장: 잔길 헤드프르 여성운영위원장: 심영희 관장, 박미영
● 주관: 미주한인전국재단, 한인후손특별위원회
● 주최: 미주한인전국재단 (National Korean American Foundation)
● 후원사: Miami - 마이아미맷슨팻슨, 마이아미맷슨빌리지, 마이아미코랄치한인장로교회, JJ 매니지먼트 회사, 마이아미 노재승공인회계사, 마이아미아담스 로펌, 마이아미생물나우학의원, 마이아미오스프레드
● Los Angeles - 소향, 성박사 스시, K-Lee Seamless, Mapi Fashion, Bagle Apparel, F&F, Fashion Love
● 후원인사 및 단체: 마이아미재외동포신문, 미주성서화운동본부, 미주크리스천신문, 크리스천월드



### 믿는사람들 주최 제4회 홀리윈 콘서트 성황 'Stars of the May' 주제, ARS 아웃리치 첫 콘서트

믿는사람들(공동운영자 제레미 박, 폴황)이 주최하는 제4회 홀리윈 콘서트가 17일 정오 아시아안발달 장애 서비스(Asian Rehabilitation Service, 이하 ARS 이사장 다나 오가와)에서 'Stars of the May'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다.

ARS 케이스매니저 김민지 씨의 사회로 시작된 콘서트는 다나 오가와 이사장의 인사말을 했으며, 여성찬양 듀오 러브위스퍼(이수정, 이진미), 소프라노 클라라김, 스키드로우밴드, 건반연주자 전창한, 그리고 ARS 특별출연진인 해피댄스팀이 나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관객으로 참석한 장애인들은 시종일관 즐거워하며 흥겨운 곡이 불려질 때는 춤을 추는 모습도 보였다. 또한 스키드로우 밴드 공연 때는 노숙자들과 장애인들이 하나가 됐으며, 하와이안 댄스를 준비한 ARS의 해피댄스팀의 순서에서는 다나 오가와 ARS 이사장이 리더로 출연해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에 충분했다.

김민지 케이스매니저는 "문화생활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ARS 친구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해줘 기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믿는사람들'은 그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자는 취지로 남가주에서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카페 공연을 개최해왔다. 이제 그 영역을 넓혀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아웃리치 콘서트를 기획하고 이날 첫 번째 공연을 한 셈이다.

믿는사람들 관계자는 "장애인과 홀리스 대상 행사는 1년 내내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야 하는 일이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맡기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진 음악인들이 믿는사람들의 마음으로 함께 찾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양로병원 등 다양한 소외계층들을 찾아가는 콘서트를 기존에 열었던 콘서트와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산돌교회에서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로 초빙된 이재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힘내세요!' 주제 산돌교회 이재철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성황

산돌교회(담임 나기영 목사)는 이재철 목사(한국100주년기념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2013 목회자 세미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님 힘내세요!'라는 주제로 16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개최했다.

이재철 목사는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명을 갖고 하는 것이며 그 한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소외된 인생"이라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인간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진리를 전했고 진리의 선봉자가 됐다. 그들의 입을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났으며 이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당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보다 월등해서 단위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능력이 없지만 그분들을 위한 통로로 세워진 자들이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면 숫자는 문제될 것 없다. 절대자 앞에서 소명의식을 지닐 때 목회가 절대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이목사는 설교에 대해서도 "설교는 성경66권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 중 하나가 편한 구절만 설교하려는 것이다. 목회자가 편한 구절만을 설교한다면 양들은 설교자의 편향에 따라 말씀의 편식을 하게 된다. 또한 편한 구절만 설교하게 되면 의도적인 설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언급했다.

또 목회자의 가정생활에 대해서는 "목회를 하다보면 가족을 돌볼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 특히 한국적인 목회현장에서는 아이들과 제대로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모들이 해야 할 부분이다. 남편이 교회일로 인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땐 반드시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인식시켜줘야 한다. 그래서 비록 함께 있지 못하지만 언제나 아버지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모들이 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월요일이나 공휴일 등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믿는사람들이 주최한 제4회 홀리윈 콘서트가 ARS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한 여성찬양듀오 러브위스퍼

###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서기" 주제 주님의영광교회 장학봉 목사 초청 부흥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주최한 장학봉 목사(성안교회 담임) 초청부흥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열렸다.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영2:10)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 첫날 저녁집회에서 장학봉 목사는 "나의 사랑 우리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장목사는 "영이 잘되면 혼이 잘되고 그러면 육이 잘되게 된다. 신 앙생활에 교회가 뭔지 제대로 알면 더 나은 믿음생활을 할 수 있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의 삶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닌 가능성 있는 자를 쓰신다. 하

나님은 부족하지만 지금이 아닌 내일을 보고 기다리신다"며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갈 거라면 무엇이 두렵고 걱정이 되서 절절때는가?"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이 책임져줄 인생이라면 기왕 믿을 거 똑소리 나게 믿음생활을 하자, 명품의식을 갖자,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살아가자.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지"고 당부했다.

장목사는 토요일 새벽 '축복의 사이클'(창1:28), 토요일 저녁 '정체성'(은2:7-9), 주일1부 '증인'(히 12:1-2), 2부 '균형'(살전1:2-5), 3부 '소원'(삼하23:1-5)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장학봉 목사 부흥회



제17회 한부모 가족축제가 LA비전교회에서 열렸다.

## 서부교계 게시판

# west

### 갯스비전교회 설립13주년 연합찬양집회

갯스비전교회(담임 임금빈 목사) 설립 13주년 맞이 연합찬양집회가 25일(토) 오후 6시30분에 개최된다. '오직! 여호와께 찬양'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집회는 유스와 청년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회복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의: (714)331-8919

### 예배사역 익스피리언스 세미나

남가주예배인도자모임(대표 최재준 목사)과 KPLA(대표 김성아 전도사)가 주최하는 예배사역 익스피리언스 세미나가 25일(토) 오전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비전센터에서 열린다. 남가주 지역 여러 교회의 예배인도자들이 연합해 만들어가는 이번 세미나의 주강사는 최지호 목사(예배사역연구소 대표, 베네수엘라 선교사)이며 박윤선 목사(은혜한인교회), 정유성 목사(베델한인교회), 박종술 목사(아름다운교회, KCCC), 이천 목사(The Church LA), 박지범 목사(생수의강산교회, 남미위성)가 선포강의를 인도한다. 회비는 20달러(점심제공).

▲문의: (213)393-9559/최재준 목사, (213)880-3645/김성아 전도사

### 제12차 신약27권 통독 집회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가 주최하는 제12차 1일 신약27권 통독 집회가 27일(월)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갯스빌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에서 개최된다. 이번집회는 영어권 자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영어성경통독집회도 함께 마련됐으며 성경은 한어권은 한글개역 성경을 영어권은 NIV성경을 사용한다. 회비는 성인 30달러, 자녀 10달러이며 두 번의 식사와 간식이 제공된다.

▲문의: (909)983-0994

### 예수 치유와 건강세미나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이운영 목사)와 JAMA(대표 김준근 장로)는 남가주지역 목회자 대상 예수 치유와 건강 세미나를 6월3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개최한다. 목회자와 사모들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건강세미나의 강사는 배성호 박사(자마 Healing & Health Ministry 디렉터)며 참가신청 마감일은 5월31일(금)까지이다. 등록비는 무료(점심식사 제공).

▲문의: (323)933-4055

### 예수님 가르쳐주신 황금률대로 살자 LA비전교회 제17회 한부모 가족축제 성료

제17회 한부모 가족축제가 18일 오후5시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박광현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가족축제는 1부 예배, 저녁식사, 2부 순서로 이어졌다.

예배는 GBY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장기용 장로의 기도, 비전중창단이 특송을 했다. 이어 "길, 진리, 생명"(요14:6)이라는 제목으로 김대준 목사가 설교했다. 김목사는 "교회가 한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접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할 수 없었다"며, "주님이 주신 깨달음은 교회는 교회 대로 한부모는 한부모대로 모두가 편견 속에 있기에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인생은 세 가지 고민이 있다. 첫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무엇이 참 진리인가?, 셋째 과연 내 삶의 끝 내 미래에는 영원한 나의 정의된 믿음이 있는가? 등이 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상에는 잘못된 가치가 많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 가정과 자녀, 그리고 후손들을 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밖에 없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 갖다 살 수 있다.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높임 받고 고귀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황금률대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는 오찬형 집사가 레크리에이션을 인도했으며 유효정 전도사가 "고난이 변하여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으며 써니송 박사가 간증 및 수기 시상상을 그리고 기도회 및 찬양시간으로 이어졌다. 이날 축제는 금병달 목사의 폐회 기도회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기적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The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SEVIS I-20 FORM 발행

- 학위: 학사, 석사, 박사학위
- 학과: 신학, 기독교교육학, 유아교육학, 목회상담학, 심리학, 선교학, 세계문화학, 문예창작학
- 특전: 월-금 오전, 오후 Class, 다양한 세부전공 선택, 윌리엄캐리대학 복수학위 수여

Website: www.reformeduniversity.org

Email: admissions@reformeduniversity.org

Toll Free 1-800-281-2123

TEL (213)736-6500 FAX.(213)735-6504

School Address: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Mailing Address: 3010 Wilshire Blvd. #228, L.A., CA 90010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 & 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TOLL FREE: 1-866-817-4094 (ext. 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 한국교회 해외에 기독교대학 설립 증가

### 7개국 10곳, 재학생 1만명 육박

한국교회가 세운 해외 기독교대학이 7개국 10곳, 재학생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또 현재 설립 중이거나 개교를 앞둔 대학이 8곳에 이르는 등 대학 설립을 통한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 사업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회(범아협·PAUA)는 최근 기독교학문 연구회(회장 장수영)가 주최한 춘계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외 기독교대학 현황'을 보고했다. 범아협은 한국교회 및 기독교인들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발전과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운영 중인 종합대학의 협의체이며, 이들 대학의 현황이 종합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범아협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캄보디아와 몽골, 우간다, 탄자니아 등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7개국에 총 10개의 기독교대학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말 현재 재학생

대학명(국가)	설립연도	총 장	학생수	개 설 학 과
간보디아 국립대학	2005	김성철	864	신학, 신학, 호남경영 등 8개 학과
라이프(Life) 대학	2006	구경희	487	간호학과, 한국어학과 등 12개학과
Y대학(CR)	1992	차영스킴	1800	공과·상대·외대 내 15개 학과
PC대학(SUK)	2010	차영스킴	250	공과·상대·외대
몽골국립대학	2002	권오문	500	국립경영 등 5개학과
홍콩국제대학(홍콩)	2002	장순홍	786	신학·경영·정보통신 등 19개 학과
울란바토르 대학	1995	최기호	3521	신학·경영·정보통신 등 28개 전공학부
UKCK(인도네시아)	1998	김종환(이사장)	350	법학과 경제학과 등 6개학과
KJUM(우간다)	1999	김성영	1044	사범·언어·신학·신경과학 등 6개 학과
UAUT(탄자니아)	2012	장성근	10	컴퓨터학과, 경영학과

(자료:PAUA)

은 9612명으로 올해 신입생을 포함하면 1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범아협은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1995년 개교한 몽골 울란바토르대학(총장 최기호)으로 재학생이 3521명, 28개 학부에 5개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다. 몽골에는 3개 기독교대학이 운영 중이며, 총 재학생 수가 4800여명에 달해 전체 해외 기독교대학 재학생 규모의 절반에 이른다. 가장 오래된 대학은 92년 설립된 C국의 Y대학이며, 다음 달 17회 졸업식을 앞두고 있다.

가장 최근에 설립된 대학은 지난해 개교한 탄자니아연합대학(UAUT)다. 이와 함께 자카르타국제대학(인도네시아)과 터키국제대학, 캄보디아 남아시아대학 등 8개 학교는 설립 중이거나 개교를 앞두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나국제대학은 정부로부터 대학 부지를 기증받은 상태이며, K국의 경우 오는 9월 4년제 대학이 문을 열 예정이다. 강성택 범아협 사무총장은 "19세기 말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면서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해외에 설립·운영 중인 기독교대학들은 한국교회가 그들로부터 받았던 복음과 교육의 빛을 갚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일보, 신천지 포교계획서 '플랜지' 입수

### 신천지, 성도 1명 포교 위해 개인정보 등 100여 항목 체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전에 작성하는 포교 계획서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민일보가 19일 단독 입수한 '플랜지'에 따르면 신천지는 포교 대상자 1명을 정밀분석하기 위해 개인신상, 물론 가정·교회정보, 경제상황, 건강상태, 신앙유형, 관심분야 등 100개 이상의 항목을 살사이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신천지가 포교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한 뒤 모략(거짓말 전도)을 위해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짜는 소문은 있었지만 실제 자료로 확인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쪽 분량의 플랜지는 포교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진도그래프,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 대상자 정보, 'SWOT 분석', 포교전략, 육아일지 등 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SWOT 분석은 대상자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등 4가지를 분석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경영학 분석기법의 일종이다. 신천지는 SWOT 분석을 통해 포교 대상자의 영적·육적 강점과 약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체크하도록 했다.

신상명세서에는 포교 대상자인 A씨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혈액형, 교회명, 직분 신앙연수 등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빼곡히 기재돼 있었다. 진도그래프에는 신천지 신도였던 B씨가 A씨와 친분을 맺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한 뒤 가짜 목사·선교사 등 포교 도우미를 투입, 복음방으로 인도하기 위한 날짜와 핵심전략 등이 기록돼 있었다. '합당한 자' 선정 기준표에선 A씨가 시간 환경 경제 건강 인성 신앙 등 13개 항목에서 신천지 포교를 받을 만한 처지에 있는지 평가를 해놓았는데 높은 점수가 매겨져 있었다. 특히 이성문제가 있는지와 가족 중 중환자 돌봄 여부, 목회자만 항상 의지하는지 여부 등 대표적인 9개 '걸림 요소'를 별도로 체크하게 했다.

해외 기독교대학의 특징은 교수를 비롯한 전 직원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이들은 각자의 전공 및 전문 분야에 몰입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믿음의 새싹들'을 키우는,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 사무총장은 덧붙였다.

범아협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해외 기독교대학에서 장·단기 봉사나 사서주길 희망하고 있다. 범아협 사무국장인 광정래 서울대 교수는 "아프리카 등 열악한 지역의 경우 교수진이 부족해 학사 운영이 어려운 대학도 있다"면서 "안식년이나 방학 등을 활용한 계절학기 강의, 퇴직 후 봉사 활동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범아협은 한국교회가 해외에 세운 기독교대학들 간 교류·협력과 학술연구, 효과적인 대학교육 사업을 연구하기 위해 2008년 조직됐다. 현재 9개 회원 대학과 설립·개교를 준비 중인 7개 준회원 대학이 가입돼 있으며, 매년 회원 대학 소재 국가를 순회하며 모임을 갖고 있다. 내년 1월 열리는 7차 대회는 서울과 부산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서 개최된다.

## "위기의 부부 급증"·꿈·신앙 상실의 원인

### 미션라이프 '부부의 날' 한국 부부위기 원인조사 대안 보도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이다. 부부는 서로 기댈 수 있는 느티나무여야 하며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 부부의 자화상은 그렇지 못하다. 현재 부부 10쌍 중 1쌍이 별거 중이고, 별거 가구의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실상 이혼 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심리적으로는 이미 남남이지만 이혼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편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법적인 혼인상태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5년마다 한번씩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2010년 집계된 비동거 부부는 모두 115만 가구다. 5년 전의 83만 5000 가구보다 30만 가구 넘게 늘었다. 비동거 가구의 비중은 2000년 5.9%에서 2005년 7.5%로 늘어난 데 이어 2010년에는 10%를 넘어섰다.



이혼이나 별거의 사유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이혼·별거 여성 6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2년 혼인실태와 가족주기의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이혼이나 별거의 이유로는 경제문제(2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우자의 외도(24.1%), 성격 차이(22.2%), 학대·폭력(12.9%), 가족부양의무 불이행(11.1%) 순이었다. 2009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성격차이(28.6%)가 가장 높았고 배우자 외도(25.2%), 경제 문제(22.8%)의 순이어서 3년만에 순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가정사역자들은 그 이유를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엔 가난해도 꿈이 있으면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러나 물질의 추구가 우선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렸다는 것.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물으면 대부분 가족이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우

리는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알리는 메시지가 선포되고,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상실 가정사역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의하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3만200건으로 전년(2만8300건)보다 6.8% 늘었다. 특히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은 전년보다 8.8% 늘어난 8600건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황혼이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부부관계에서 누적된 갈등의 결과다. 전문가들은 젊은 시절 미리 노년기에 부부가 감정을 공유하는 노년기를 끼어주는 것도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가정문화연구원 두상달 이사장은 "은퇴 후 최고의 재테크는 부부관계 개선이란 말이 있듯이 평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중년기부터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에 비해 노년성 치매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말했다.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은 재정 성격 배우자 폭력 등 생활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유를 대지만 근본 이유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만큼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

## 신천지 복음방 교육 때 꼭 가르치는 성경구절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회장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반드시 가르치는 핵심 성경구절 5개를 공개했다. 신천지가 복음방·교육센터에서 가르치는 이들 핵심 구절은 주요 그림 3개·18개 성경공부 주제와 함께 그들의 교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전 숙지만 해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협회가 15일 밝힌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24-35절이다. 신천지는 복음방과 교육센터 초등과정에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34절)며 '비유풀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비유로 된 말씀 속에 성경의 본래 참뜻, 실제, 실상이 들어있다는 것인데 예언

이 성취되는 마지막 실상의 때에 비유가 풀어진다고 세뇌시킨다. 마가복음 4장 13-14절도 신천지가 피해야 할 수 없는 구절이다. 신천지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14절)을 이용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비유한 씨의 참뜻은 말씀이라고 주입시킨다. 신천지는 이 구절을 토대로 하나님의 씨와 사단의 씨가 있다고 구분한다.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는 나무가 되어 새(하나님의 성령)가 임한다고 가르친다. 이사야서 34장 16절도 빼놓지 않는 구절이다.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라는 구절을 내세워 모든 말씀에 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추출해낸 일명 '짝 교리'는 사이

성경구절	주 장	목적
마 13:24-35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풀이 정당화
막 4:13-14	말씀을 뿌린다	'말씀=씨앗' 교리 정당화
사 34:16	말씀엔 반드시 짝이 있다	말씀 짝 교리 정당화
호 4:6	성도들이 지식이 없다	신천지 교육 필요성 제기
잠 3:7	거짓말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	모략(거짓말 전도) 정당화

(자료: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비 교주를 만드는 교리라고 불리는 데 신천지 교리의 '마스터키' 역할을 한다. 이밖에 호세야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말씀은 신천지 교리를 꼭 배워야 한다는 주장에, 로마서 3장 7절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도다"는 구절은 모략(거짓말 전도)을 정당화할 때 써먹는다. 신현욱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

회 구리상담소장은 "신천지는 복음방 교육에서 말씀을 외우게 하고 단답식 문제나 괄호 채우기, 성경구절 쓰기 등의 주관식 시험을 보면서 서서히 교리를 세뇌시킨다"면서 "한국교회가 신천지의 핵심 성경구절만이라도 미리 숙지시킨다면 성도들이 잘못된 성경 공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대한성서공회 새 이사장에 김동권 예정합동 증경총회장

대한성서공회는 21일 제119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김동권 부이사장(예정합동 증경총회장)을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김동권 선임 이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알고 겸허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이사장에는 정하봉 목사, 서기에 이정의 목사가 선임됐으며 회계는 손인용 목사가 유임됐다. 성서공회는 이사회 실적보고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19개국에 131개

언어로 311만3296부의 성경을 제작, 수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만5771부(6.3%) 늘어난 수치다. 금액으로는 1223만 6392달러(136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63만561달러(5.4%) 증가했다. 성서공회는 성서 제작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29억원 상당의 최신식 제본기계를 구입, 오는 7월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b>★ 1년 구독료</b>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모나리자

## 스킨 케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상품권 \$30, \$50, \$70, \$100등으로 준비했습니다.

-60세이상 권사님 교인들께도 특별할인 서비스 해드립니다.

**\*사위시설 완비 (\*두피 클리닉)**

리프팅/화이트닝케어	1회	<del>\$40</del>	\$35	10회	<del>\$350</del>	\$300	1회	FREE
여드름 케어	1회	<del>\$50</del>	\$40	10회	<del>\$400</del>	\$350	1회	FREE
팔슬림 케어(스페셜 기계도입)	1회	<del>\$40</del>	\$35	10회	<del>\$350</del>	\$300	1회	FREE
등 경락	1회	<del>\$50</del>	\$40	10회	<del>\$400</del>	\$350	1회	FREE
배 경락	1회	<del>\$40</del>	\$35	10회	<del>\$350</del>	\$300	1회	FREE
전신 경락	1회	<del>\$200</del>	\$150	10회	<del>\$1500</del>	\$1250	1회	FREE
Aqua Therapy	1회	<del>\$250</del>	\$200	10회	<del>\$2000</del>	\$1800	1회	FREE

# 모나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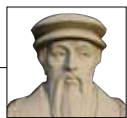
스킨케어

1134 S. Western Ave 2F. #B4.  
Los Angeles, CA 90006

**Office (323)737-7221 / Cell(213)321-7137**

\*1회 케어도 환영합니다.





# 위그노 신앙 답사기(2)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칼뱅의 집터에 세워진 집은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3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2층에 있는 칼뱅의 상반신을 그린 큰 그림의 특징은 모자를 썼고 오른쪽 검지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의 삶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칼뱅의 삶의 모토였다. 그래서 그의 무덤도 알리지 말라고 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장소를 모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약간만 잘해도 이름을 알리고 싶거나 안달을 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방면에 재능이 있어 탁월하다고 할 때 그것은 오로지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려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곳에는 개혁자의 순교당하는 장면의 그림, 또한 칼뱅의 죽음을 앞두고 남아있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교를 부탁하는 그림, 그리고 면죄부, 또한 칼뱅이 앉아 강의하던 의자의 모형들, 그리고 위그노들이 광야에서 숨어 이동하던 강대상을 그려놓은 당시 사용했던 강대상 등이 전시되고 있다. 너무나 수수하기만한 기구들이다.

칼뱅이 왔었다는 모조품 의자에 가만히 앉아보았다. 초라하기만 한 칼뱅이 설교했던 강대상을 보고 있노라니 오늘날 화려함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강당이 기억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칼뱅이 평생 치열하게 목표했던 개혁의 대상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자주 화려해가만 하는 현대교회와 함께 칼뱅은 뭐라고 할까 싶다. 개혁이라는 음성이 크게 메아리 되어 울려온다.

바시(Wassy)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축도록 충성하는 지도자(계2:10)인데, 주제와 탐방은 연관성이 있어 좋았다. 이유는 칼뱅의 사상을 이어받아 불길처럼 일어났던 위그노를 찾아보는 일이기 때문이다. 위그노는 불탄서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신앙운동으로 그중

에 바시는 첫 번째로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지역이다. 바시는 파리에서 남쪽으로 240Km로 멀리 떨어진 농촌 마을이다.

목회자 세미나를 19년 동안 해보았지만 비가 왔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금년에는 세미나 시작부터 선교지 방문 내내 끊임없이 비가 내린다. 이런 이상기후도 말세의 징후(?) 인지 모르겠다. 심지어는 우박까지 내리니 이동에 큰 불편을 준다.

그래도 동행한 목회자들은 내내 작은 일에도 체면도 차리지 않고 가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며 즐거워하니 임원이 감동하기만 하다.

한없이 푸른 초원을 몇 시간 동안 달려 작은 도시 바시에 도착했다. 현재 3,150명이 거주하는 작은 농촌 도시라

가톨릭교회에서는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특이한 광경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많이 모일 때는 3천명까지 모였다고 하니 이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이 날은 좁은 창고에 가득 모였는데 대략 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보고가 되자 구교의 1등 가문 기즈가 2백 명의 용병들을 보내 곡식창고에 불을 지르고 총과 칼을 사용해서 250여 명의 위그노를 죽였다. 이 사건은 곧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라고 한다.



칼뱅이 법학박사학위를 받은 오를레앙대학

의 도화선이 되어 36년 동안 여덟 차례의 종교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1919년 4월 15일 일제강점기 때 경기도 화성의 제암리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중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 30명을 죽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말이다.

지금도 창고 한편은 시커먼 화염자국이 남아있어 지난날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준다. 결국 생명의 길은 평평한 대로가 아닌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시커먼 화염자국이 지금껏 남아있어 방문객들을 교훈한다.

이런 마을에 위그노의 핍박현장을 보려고 저 멀리 동양에서 70여명이나 찾아왔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경이로운 사건으로 비쳐졌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방문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이 지역 신문 기자가 우리를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으며 연신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댄다. 불탄 자국을 보려고 멀리 이곳까지 달려온 것이 신기해서 일까? 아니면 감동을 받았기에 그랬을까?

선배들이 이처럼 피흘려 지켰던 신앙이 세월과 함께 완전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결과 이 마을에 개신교 신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말을 듣고 기도가 절로 나온다. "주여, 이 마을에 다시 한 번 참 복음이 흥기하게 하여주시옵소서! 수 시간동안을 말씀을 듣기 위해 걸어오는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소서!"

(계속)

# 선교 펴기 GP한국본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후 구체적인 선교사의 행동지침을 주신 사43:7 말씀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흥분됩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기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완연한 여름 날씨를 보이는 요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평안한 안부를 올리며 김일방(인호) 선교사의 사역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GP한국본부 사역을 시작하지 었그제 같은데 벌써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GP선교회 한국본부에서 부대표로 섬기면서 그간의 선교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선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무엇인지 필드가 아닌 본부에서 절실히 느끼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본부 사역은 정말 감사하고 풍성한 경험을 갖게 합니다.

기간 약간은 방관자의 위치에서 이해하려 했다면 지금은 적극적인 자세로 필드의 필요들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찾아오고 싶은 선교회필드 중심의 선교회선교사를 위해 존재하는 선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섬기는 본부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두고 온 선교지 키르기스스탄의 두르지 비교회는 동료 선교사님께서 돌아 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으로 유학한 키르기스스탄 두르지비교회 청년들 중 유카이크리타나는 어느덧 경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이 되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올라는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2학년이 재학중이구요. 배레나는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1학년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한국 유학생활을 통해 배운 학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키르기스스탄에서 저에게 태권도를 지도받은 알마스 청년과 미를란 청년은 현지 교회내 전도 프로그램으로 교회주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태권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열매들이 나타

나게 하셔서 키르기즈와 이슬람 땅에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돌아오는 것을 두 청년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된 일을 보고 더욱더 열정적인 사역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사법들이 되어 지도록 그리고 담대하여 영적충돌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은총이는 경희대 2학년 정치외교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미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처음 경험하면서 공부하는데 감사하게도 성적장학금을 받고 지금까지 등록금 걱정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울러 5/3일 UN 인턴과정에서 최종 합격하여 약 6개월간의 수습과정의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학부생들은 잘 뽑지 않는다고 하는 과정인지만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느 나라로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1순위 지역인 키르기스스탄으로 나가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딸 기쁨이는 소명대안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서투른 한국어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과 단어를 복습하는 것과 새벽 2-3시까지 공부합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힘들지만 재미있고 해볼만 하다며 맑은 미소를 지어보입니다. 한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져나가고 적응해 나가는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장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게 될 자녀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기도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리라 여깁니다. 저의 아내는 미래 선교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자격증들을 위해 다시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힘이 길어지면서 꽃가로의 영합 때문인지 온몸이 가려워서 밤잠을 설칩니다. 건강하고 앞으로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의 아내 문경미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본부에서 사역하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선교사 발급/훈련/동원/행정적인 일들로 매마르지 않고 영과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역이 매일 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직장과 교회와 사역위에 주님의 살롬을 기원드리면서...

GP한국 173유니 311명의 선교사를 섬기는 32개국본부 대표 김일방 선교사 드립니다.



<b>세계로번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나성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3:30 찬양예배: 오전 6:00(월-토)	<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찬양)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나성서부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EM: 대안: 오후 11:30 주일예배: 오전 11:00	<b>남가주주둔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	<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목요 예배: 오후 7:00 수-금 예배: 오전 6:00(월-토)	<b>남가주사탕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목요 예배: 오전 11:10 수-금 예배: 오후 7:00 (Korean/English/Thai) 주일 4부예배: 오후 11:10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 예배: 저녁 7:30	<b>등문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12:30 수요찬양: 오전 5: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아침예배: 오전 9:30 3부 아침예배: 오전 11:00 4부 아침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 오전 5:30(토) 세례예배: 오전 7:00(월-토)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우리의 동역자를 위한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미주 평안교회</b> 담임목사: 송정명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찬양/영양/세례) 세례기도회: 오전 6: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찬양) 수요찬양: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교육부주일예배: 오전 5:30(월-토)	<b>벤티쿠버라델비아교회</b>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7:30	<b>브리지교회</b>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세례예배: 오전 5:30	<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 4부예배: 오후 1:30 영양 5부예배: 오후 2:00 영양 6부예배: 오후 3:30 영양 7부예배: 오후 4:00 영양 8부예배: 오후 5:30 영양 9부예배: 오후 6:00 영양 10부예배: 오후 7:30 영양 11부예배: 오후 8:00 영양 12부예배: 오후 9:30 영양 13부예배: 오후 10:00 영양 14부예배: 오후 11:00 영양 15부예배: 오후 11:30 영양 16부예배: 오후 12:00 영양 17부예배: 오후 12:30 영양 18부예배: 오후 1:00 영양 19부예배: 오후 1:30 영양 20부예배: 오후 2:00 영양 21부예배: 오후 2:30 영양 22부예배: 오후 3:00 영양 23부예배: 오후 3:30 영양 24부예배: 오후 4:00 영양 25부예배: 오후 4:30 영양 26부예배: 오후 5:00 영양 27부예배: 오후 5:30 영양 28부예배: 오후 6:00 영양 29부예배: 오후 6:30 영양 30부예배: 오후 7:00 영양 31부예배: 오후 7:30 영양 32부예배: 오후 8:00 영양 33부예배: 오후 8:30 영양 34부예배: 오후 9:00 영양 35부예배: 오후 9:30 영양 36부예배: 오후 10:00 영양 37부예배: 오후 10:30 영양 38부예배: 오후 11:00 영양 39부예배: 오후 11:30 영양 40부예배: 오후 12:00 영양 41부예배: 오후 12:30 영양 42부예배: 오후 1:00 영양 43부예배: 오후 1:30 영양 44부예배: 오후 2:00 영양 45부예배: 오후 2:30 영양 46부예배: 오후 3:00 영양 47부예배: 오후 3:30 영양 48부예배: 오후 4:00 영양 49부예배: 오후 4:30 영양 50부예배: 오후 5:00 영양 51부예배: 오후 5:30 영양 52부예배: 오후 6:00 영양 53부예배: 오후 6:30 영양 54부예배: 오후 7:00 영양 55부예배: 오후 7:30 영양 56부예배: 오후 8:00 영양 57부예배: 오후 8:30 영양 58부예배: 오후 9:00 영양 59부예배: 오후 9:30 영양 60부예배: 오후 10:00 영양 61부예배: 오후 10:30 영양 62부예배: 오후 11:00 영양 63부예배: 오후 11:30 영양 64부예배: 오후 12:00 영양 65부예배: 오후 12:30 영양 66부예배: 오후 1:00 영양 67부예배: 오후 1:30 영양 68부예배: 오후 2:00 영양 69부예배: 오후 2:30 영양 70부예배: 오후 3:00 영양 71부예배: 오후 3:30 영양 72부예배: 오후 4:00 영양 73부예배: 오후 4:30 영양 74부예배: 오후 5:00 영양 75부예배: 오후 5:30 영양 76부예배: 오후 6:00 영양 77부예배: 오후 6:30 영양 78부예배: 오후 7:00 영양 79부예배: 오후 7:30 영양 80부예배: 오후 8:00 영양 81부예배: 오후 8:30 영양 82부예배: 오후 9:00 영양 83부예배: 오후 9:30 영양 84부예배: 오후 10:00 영양 85부예배: 오후 10:30 영양 86부예배: 오후 11:00 영양 87부예배: 오후 11:30 영양 88부예배: 오후 12:00 영양 89부예배: 오후 12:30 영양 90부예배: 오후 1:00 영양 91부예배: 오후 1:30 영양 92부예배: 오후 2:00 영양 93부예배: 오후 2:30 영양 94부예배: 오후 3:00 영양 95부예배: 오후 3:30 영양 96부예배: 오후 4:00 영양 97부예배: 오후 4:30 영양 98부예배: 오후 5:00 영양 99부예배: 오후 5:30 영양 100부예배: 오후 6:00	<b>세계비전 교회</b> 담임목사: 김영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00 영양예배: 오후 1:3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3:30 영양예배: 오후 4:00 영양예배: 오후 5:30(월-토)	<b>세계사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주일 6부예배: 오후 3:30 주일 7부예배: 오후 4:00 주일 8부예배: 오후 5:30(월-토)	<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찬양: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얼마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찬양) 수요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세례기도회: 새벽 5:30	<b>일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절기예배: 오후 6:0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요절기예배: 오후 6:00(토)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전 3: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수요 찬양: 오후 7:30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찬양) 세례기도회: 오전 6:00 수요 찬양: 오후 7:30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b>토렌스주요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찬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찬양) 주요예배: 오전 10:00 주요예배: 오후 8:00







#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1 사모의 사명 가꾸기(3)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모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란 누구인가? 사모는 어떤 여성인가? 사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모들 중에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학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해합니다. 그들 중에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비사모들은 우선 어떻게 해야 하는 것보다 사모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사모의 위치와 정체성 확고하게 붙들면 성격 조화 통해 효율적 목회할 수 있어

사모들 중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사명을 받은 사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도 없이 남편이 받은 사명만 갖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모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잘해보려고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초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쳐 쓰러지고 사모의 행복은커녕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 잠도 잘 수 없습니다. 성도들로부터 한 가지라도 지적을 받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고민고민하지만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알 수 없어 신음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리게도 되죠. 사모들을 제일 괴롭히는 전사역을 때려 버리지도 못한 채 괴로워하다가 자치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모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채 사명을 받았다고 너무 설쳐대는 사모들로 인해 고민하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요즘 음옴 총각 전도사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기쁘게 '사명 없는 여성'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이 지나쳐서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되어감에 따라 각종 은사를 개발하는데 힘을 쓰는 사모들이 늘어납니다. 사모들 자신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또는 은사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부부는 사모가 남편보다 영성이 깊고 설교도 잘하여 남편의 목회지에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남편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목회자부부는 아내가 목사안수를 받은 후 목회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런 아내를 오히려 목회에 동역자로 함께 사역현장에서 뛰게도 합니다.

어느 경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모란 남편에 의해 주어진 명칭이며 사역자입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 자신의 위치와 해야 할 일도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이란 남편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이 남편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은사를 더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돕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어느 평범한 부부보다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목회자부부입니다.

행복은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을 누리게 합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 서 있을 때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모들은 뿌리요, 묵사는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능면에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위치를 설명해주는 것입니다. 위치는 곧 사명과 역할을 설명해줍니다. 뿌리는 땅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과 영양분을 끌어올려주어 나무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뿌리가 땅속에 안 있고 역을 해서 밖으로 나온다면 그 순간부터 나무는 말라서 죽게 되죠. 뿌리가 땅속에 있다고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는 땅속에서 자신의 할 일만 묵묵히 하면 나무가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뿌리가 든든히 살아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무가 답답하다고 세상 밖으로 나오면 날이면 그 나무와 더불어 말라죽게 되는 법이죠. 여성의 파워가 날로 기승하는 현대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또는 성격상 이런 원리를 잘 지키기 힘든 부부도 있습니다.

디모데성경연구원에서 발행된 피플퍼즐을 보면 사람의 기질에는 4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바울과 같은 주도형, 아브라함과 같은 안정형, 베드로와 같은 사고형, 모세와 같은 신중형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기질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신중형과 안정형이 섞여 있는 목사와 사고형이면서도 주도형인 사모의 경우, 서로 힘들게 되며 역울한 소리로 많이 듣게 됩니다. 주로 신중형의 특징

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교형의 특징은 말이 많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않으면 힘이 솟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모들은 기도를 극성스럽게 사람들 앞에 표시하게 합니다. 응답도 요란스럽게 받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급한 성격 때문에 오래 참지 못하고 응답도 빨리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설득합니다.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는 남편을 볼 때 답답해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단정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기질을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은 배필이기는커녕 주도하고 자기 스타일로 사역에 앞장서는 사모들이라 할지라도 사모의 위치와 정체성만큼은 확고하게 붙들고 나가면 성격의 조화를 통해 오히려 효율적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은 배필은 남편을 세우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모의 경우 또는 사명이 투철하여 많은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사모들이 남편이 쉬운 실수는 남편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의 기를 세우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해놓고는 빨리 부흥되지 않는다고 남편을 닦달하기도 하며 남편이 혁신이라도 기도의 응답을 늦게 받으면 답답해서 자신이 직접 응답을 받기 위해 금식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응답을 받기 해도 남편의 응답과 서로 다르더라도 남편의 응답을 무시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 남편보다 우수한 아내들이 받기 쉬운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목사님을 목회자로 세우셨지 똑똑하고 유능한 사모를 교회의 리더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목사님을 도와주고 남편목사님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모들에게는 더 많은 재능을 주셨고 영적 민감도를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모의 정체가 무엇인지 바로 알게 되면 스스로 뿌리의 자리에 들어가 묵묵히 나무를 세우고 나타나는 모든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사모가 될 것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www.godfamily.com

##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 월 영통의 길(신26:12-19)찬434장

12장에서 시작된 설교의 결론인 본문에는 가나안의 복이 임하기 위하여 입을 넓게 열게 하는 영통의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수평적으로 입을 열고 하십시오.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영통의 사람은 소자를 품고 세계를 품는 사람입니다. 제자도를 가는 사람은 모든 민족을 도와주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마28:19-20). 그러므로 그는 수

직적인 힘을 받아야 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사람입니다(15). 약속대로 온전한 심일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가나안의 젓과 꿀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영적 가나안에 있었지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영통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입을 열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 화 영적 긴장의 도(신27:1-26)찬388장

신령한 삶은 영적 긴장이 있는 길입니다. 생사를 가능하게 하는 영적긴장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순도를 유지하게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산과 에발 산의 축복 혹은 저주의 선택을 위한 실험교육은 그 영적긴장을 추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기념비를 세워 복을 계속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

으로서 복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순종이 유일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언약백성일 지라도 복의 흐름을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영적 긴장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의 신앙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 수 복을 누리는 삶(신28:1-14)찬500장

가나안의 복을 이미 받은 이스라엘에게 그 복을 계속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복이 약속되었습니까? 첫째, 순종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1) 모두 지켜야 하고(1)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14)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14). 말씀 순종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

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요15:5). 그의 말씀, 그의 사랑, 그의 다스림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약속된 복이란? 조건을 이행할 때 주어지는 복, 20여 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3-6).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소출에 넘치는 보호와 존귀와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십시오.

### 목 들순종의 삶(신28:15-35)찬343장

복과 저주가 말씀순종여부에 달려있듯이 신약의 밝은 시대에는 성령을 좇는 여부에 생사가 달려있습니다. 들순종이란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모든 악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 성음, 들, 광주리, 그릇, 자녀, 소산, 우양새끼,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견책과 과멸이 임합니다. 몸이 열병,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자, 썩는 재앙, 가뭄이 임한

다고 합니다. 대적 앞에 혼비백산하는 참패를 당하고 흠어져 그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기, 치질, 괴혈병, 개장으로 미치고, 눈멀고, 경성증에 걸리거나 치료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아내와 집과 포도원과 모든 소유가 노략을 당합니다. 순종으로 이런 저주를 예방합니다.

### 금 들이키는 자의 은혜(신30:1-10)찬411장

본문에서 우리는 저주받아 잠깐 땅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돌이킬 때 회복하신다는 약속대로 진노 중 긍휼을 잊지 않는 자비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첫째, 온 땅의 흠어진 자를 모으시니(3) 하나님이 모으신 부류가 교화입니다. 교화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 없습니다(요6:45). 둘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6). 순종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근본을 고칩니다. 할례란 거듭남 즉, 새 생명의 이식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일입니다. 셋째, 이전보다 더 크게 하십시오(10). 돌이킬 때 받은 긍휼이 더 큼니다. 무한한 자비로 다시 기뻐하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은혜가 내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 토 가까이 있는 말씀(신30:11-20)찬209장

믿음생활은 언제나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절대 무기인 말씀을 두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하면 모든 고난에서 즉각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복과 화,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어 말씀을 순종하여 생명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구원에 그대로 적용하여 누구든지 그리

스도의 공로를 마음으로 믿어 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면 의의 증거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롬10:9-10). 이신칭의적 구원이 구약교회에 벌써 적용되었음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기이한가를 느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가까이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해외 교회</b>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호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중앙구 영우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3770 서울시 용문구 영우동 340-(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5: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야기기도회: 오후 9:00 Tel: (02)2-2643-9419, Fax: (02)2-2642-4834 500-170 광교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문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6:00(매일) 새벽기도회: 오후 8: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관관) VIA DEI QUINTILI, 92-38,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2643-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b>삼보교회</b> 담임목사: 박장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8,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영우동 622-3 (158-053)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3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옥동동 221-4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173-26호	<b>수영로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8:5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2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02)2-568-0191, Fax: (02)2-562-2738 인천시 서구 영동동 416-4(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5:00(월-토) Tel: (02)732-2413-3, 새벽(02)389-2235 (110-2907) 서울시 강동구 길동 137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527-1009,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왕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842-1981-3,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520 (158-051)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이문동 제1 2층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상산구 봉곡동 415 www.yang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2:00 금요일야기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3341-3, 새벽(02)942-6882 (136-831) 서울시 양천구 영우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홍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신길동 448-2	<b>청주주노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문동 302-67 (140-031)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tado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2-CARUARU-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주일3부예배: 저녁 9:00 주일4부예배: 저녁 10:30 주일5부예배: 저녁 11:40 수, 초, 중, 고등부예배: 오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주일4부예배: 오후 9:0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스페니실) Tel: (595)21-574-985 E-mail: hanmirk@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인/터/뷰 김중준 목사 (한국 꽃동산교회 담임)

# “어린이 선교 통해 세계를 복음화 하자”

본지가 매년 주최하는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제 28회 주강사로 초청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꽃동산교회 김중준 목사와 어린이들로만 시작한 꽃동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주일학교가 사라져 가고 있는 한국 교회 상황에서 어른과 엇비슷한 숫자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꽃동산교회는 그야말로 차세대 한국 교회의 모델이다.

받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집이 있는 산촌에서 성장했던 김중준 목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전도를 받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다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고자 무작정 상경한 서울에서는 밀바닥 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니 유혹의 손길은 극심했다. 그러나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집로 가지 않고 신학교를 가서 결국 목사가 됐다.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틀림없이 세속인이 돼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복음 전도가 중요성을 신학교 때부터 염두에 두었습니다.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어린이 전도였습니다. 개척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초기부터

와서 의료사업, 교육사업이 주를 이뤘다. 당시 주일학교에서 교육 받았던 사람들이 부흥 한국교회의 주역들이 됐다. 세계선교도 어린이 사역이 템포가 빠르다. 어른들 변화는 어렵다. 어린이 전도 동기부여 현장을 이미 30년 전에 깨닫고 시작한 셈이다.

이민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현재 어디서나 주일학교 교육이 제일 심각하다. 한인교회들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안다.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 일주일 부흥회 하는 것은 쉽지만 1년 내내 영적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은 신학생들이 교육전도사로 투입된다. 학비가 해



원,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개척 전인 1981년 시작한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다. 방학 동안에 캠프

을 시킨다. 주일학교 교사만 1500명이다. 절기마다 교사훈련을 시킨다. 15세 미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쉽고 중요하다. 루이스 부시의 4/14(4세-14세)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세대 어린세대를 세우는 것이다. 어린영혼 구원은 그 일생에 중

요한 일이다. 하면 할수록 사명을 더 느낀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시대 믿음의 용사들이었지만 (삿2:1-2:10) 다음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것은 결정적인 실수다. 이 시대 교회지도자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이다. 자신의 신앙에는 관심이 많지만 다음 세대에 관심이 없다.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은 다음세대 교육이다. 7, 80년대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은 50년 중반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일어났던 한국교회 주일학교 부흥기로 설명된다. 전쟁 후 피난민들에게 교회에서 먹을 것, 교육 등을 제공해 아이들이 넘쳐났다. 지금 아프리카가 그렇다. 어렸을 때 떨어졌던 복음의 싹은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한국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있기 때문.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국의 교회는 1년에 3천교회가 없어지고 1200교회가 생긴다. 주일학교는 장년부가 되면 50%이하로 줄어든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영혼구원보다 사회사업에 관심을 더 기울이면 망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했다. 목회자들이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신경을 써야 미래가 있다. 그 가문을 살리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일은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유원정 기자)

## 주일학교 교육 철저히 다음세대 신앙으로 가르쳐야 어린이 전도로 교회부흥... 절반이 자녀가 부모 전도

교회학교 교사를 철저히 훈련시켰고 1년 만에 어린이가 300명으로 늘어났죠.”

김 목사는 총신대를 졸업하고 한국어린이교육선교회를 만들어 교회학교 교사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교회학교 성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 생명구원에 포커스를 맞춘 꽃동산교회를 개척한 것. 장년신자는 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은 개척 1년 만에 300명이 됐다.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부모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결국 개척 3년이 지나자 급성장하면서 현재 장년 6천5백여 명, 어린이 5천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부흥했다. 등록 장년신자 가운데 절반이 자녀 때문에 등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어린이 전도부흥이 교회의 급성장으로 나타나게 됐다.

**목회철학**  
“어린이 선교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 하자”로 슬로건을 세웠다. 한국 기독교역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결집니 의무적으로 하나씩 인원은 해소되는데 문제는 경험이 부족하고 사명감도 없다.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장년목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육을 연구하지도 않는다. 즉 전문교육에 올인 안한다. 오히려 교육전도사들에게 말기는 것보다 부장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사 경험이 많은 평신도를 뽑아 전문교육을 시켜 말기면 사역이 지속성도 있어 효과적이다. 한인교회들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전**  
전 세계 교회들이 차세대를 세워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 어린이 복음전도보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어린이 선교가 쉽다. 이런 환경도 언제 사라질 지 모른다. 시기가 지나기 전에 전해야 한다. 그래서 꽃동산교회는 필리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수단, 콩고, 르완다, 우간다, 카메룬,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해 유치

교재를 만들고 영어주일학교 교재, 노래유동집, 시청각 표준공과 등을 제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일을 하고 싶다. 한국교회는 장년중심으로 차세대에 무관심하다. 어린이는 소비성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부가 부흥하면 장년부 부흥이 빠르다. 한국교회는 부흥에 혈안이 되지 말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김중준 목사는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서 다음과 같이 강의했다. 그의 결론이다.

“어렸을 때 주님을 체험하면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은혜 받은 어린이들은 부모들을 교회로 인도한다. 케냐 우간다 콩고 등 아프리카에 50개의 어린이학교를 열고 한국어 찬양을 가르친다. 필리핀에도 18개 유치원, 인도 길거리학교로 시작해 고아원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한국에도 웨마기독교 교 등 방과후학교를 통해 성경교육

### 새책소개

## “주 손길” Touch of Jesus

저자 고요한 목사



뉴욕장애인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고요한 목사가 그동안 써놓은 글들을 모아 한 권으로 묶은 “주 손길”(Touch of Jesus)가 콤팩트출판사에서 출간됐다.

너싱홈선교 찬양사역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고 목사는 “은 우주공간에 펼쳐져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은 인생의 고뇌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는 유일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너싱홈의 순례자들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목회적 체험을 한 편의 책으로 엮었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책은 제1부 빛을 남긴 사람들, 2부 너싱홈 선교로 나뉘며 1부에는 뒤러, 베토벤, 크로스비, 헬렌 켈러, 리빙스턴 선교사, 다미안 신부, 슈바이처 박사,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주기철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 조지 워싱턴, 이승만, 록펠러, 개척주의 신학의 거목들 제목으로 신앙인들

## 하나님나라 소망삼는 너싱홈 순례지들과의 목회체험 답아

을 소개했다.

2부에는 “구약과 신학”, “주 손길” 등 다양한 주제로 혹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타인들의 글을 포함 28편의 글을 실었다.

고 목사가 소속돼 있는 IPHC(International Pentecostal Holiness Church) MAC 한인코디네이터 아브라함 J. 최는 발간사에서 “겨울날의 갈대처럼 연약한 듯 하지만 곳곳에 버티는 힘은 본인의 능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소재일 것”이라고 다리에 장애를 가진 고 목사를 표현했다.

추천의 글은 뉴욕호신장로교회 방치각 원로목사, 뉴욕베데스다교회 김원기 목사, 뉴욕초대교회 김승희 목사, 전 미주한인 여성목회자협회 회장 김금옥 목사 등이 썼다.

고요한 목사는 “책이 뉴욕의 지역교회와 기독교체, 기독교사역인들의 후원으로 출판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총 301페이지.

저자 이메일: pastorkoh@hotmail.com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성경적인 가르침과 DSM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었다. 성경은 정신적, 감정적, 관계적 문제들이 죄, 반역, 분노, 질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 우상숭배, 악령, 하나님의 뜻에서 온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가 그렇게 처방을 하면 큰일이 난다. 이런 신앙적인 요소를 전혀 가미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진료에 포함시킬 수 없다. 반드시 DSM의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 보험이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크리스천으로서 정신의학 계통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

을 것 같다.

정신질환 진료와 처방과 연구에 성경과 같은 DSM이 변화된다고 하니 새로운 기대를 가져본다. 그동안 절대적인 힘을 과시한 DSM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경에는 분명한 정신질환에 대한 예들도 나오고 처방들도 나온다.

이번 기회에 약물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는 보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지침이 나오는 것을 기대함은 너무 무리한 내 욕심인가?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 담임 목사 청빙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에덴장로교회(PCUSA)는 36년의 역사와 자체성전을 소유한 준비된 교회로써 아래와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 자격

1. PCUSA 교단소속 또는 본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분.
2. 본교단이 인정하는 정규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하신분.
3.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로서 2중언어(한/영) 능통하신분
4. 목회경력 10년이상 이신분.

### ■ 제출서류

1. 이력서(한/영 각1부) 및 가족사진
2. 목회 소견서
3. 본인, 사모, 가족소개서
4. 최근 6개월내 설교 동영상(CD or DVD)
5. 대학 및 신학대학 졸업 증명서
6. 목사 안수 증명서

마감 : 2013년 5월 31일

우편 제출처 : Eden Presbyterian Church /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문의 : 청빙 위원장 이영배 장로 (daniellee1028@gmail.com)